

전략연구 2015-15

#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초 실태조사 연구

김태연 · 고경호 · 김대중 · 홍동욱



## 발 간 사

1970년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했던 충남지역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충남의 지리적인 조건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제발전체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경제발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불황기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었던 제3이태리 사례를 통해서 최근 세계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도적인 발전전략이 국가경제발전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도적인 발전전략은 지역경제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긴밀한 지역적인 순환경제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인 지역 개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에서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적인 경제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가 실행되어 왔으며,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발전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려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향후 충남지역의 자립적인 경제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로 수고하여 주신 단국대 김태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과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충남 지역경제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5년 8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1.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했던 충남지역은 아직 까지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충남의 지리적인 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제발전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획일적인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발전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범위의 경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소규모 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적인 경제체제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이 연구는 지역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충남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세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정부 재정의 악화에 따른 각종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로 인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문헌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Howells(2006)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켈로그재단(2011)도 “최소한 두 부분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체 및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충남의 산업경제 현황 분석

2013년도 충남의 1인당 GRDP는 45,629천원으로 울산(60,556천원)에 이어 2위이지만 증가율은 7.9%로 전국 1위로 분석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충남 시군별 1인당 GRDP는 산업이 발달한 충남 서북부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서부지역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0.4%로 전국평균(45.1%)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2013년도 충남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 서북부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이 양호한 시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분석을 통해 충남의 지속성장에 인구의 지역불균형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의 저하가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충남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경기와 서울, 대전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많고 증가율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비 투자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2013년도의 충남 내 투자액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내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도 충남의 수출액 규모는 경기, 울산에 이어 3위, 수입액은 서울, 경기, 울산에 이어 4위로 충남의 무역 특화도는 경북, 광주, 충북, 대전에 이어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15.9%),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5.2%)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활동 부분에서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대비 비율이나 생산기여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림어업 및 광업의 성장추세가 매우 낮고, 3차 산업 부분의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전국대비 비율도 낮고 지역내총생산 기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3년 현재 전국 사업체수는 3,676,876개, 충남은 145,998개로 3.97%, 전국 종사자수는 19,173,474명, 충남은 777,843명으로 약 4.06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산업별 업종단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국대비 충남의 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을 분석하고, 산업집적 및 산업구조변화속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 및 고용계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업종별 지역경제 성장요인과 효과를 분석한 후 업종별 산업발전 단계를 유형화해 보았다.

### 3) 중간지원조직 조사 분석 결과

충남지역을 사업지역 범위로 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비영리 산업경제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는 해당 단체들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단체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는 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충남벤처협회, 한국여

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 등 총 9곳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먼저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정관과 조직도 및 임원현황, 주요기능, 추진사업내용, 재정현황, 회원사 현황 등 각종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1차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해당 단체들의 조직 현황 및 활동실태, 애로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9개 문항을 중심으로 후속 설문 및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인 면담과 간담회,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직에 대한 일반 현황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해당 단체들은 모두 회원 기반의 비영리조직이라는 특성과 전 산업(업종)을 망라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범산업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법인 형태의 조직과 전국조직의 지역지부형태의 조직으로 나뉘어 각각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과 추진사업은 각 단체의 역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사업의 양과 규모, 서비스의 질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체사업 보다는 위탁사업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해당단체들의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단체에 따라 연간 1억1000만원에서 최대 79억여 원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6곳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단체들로, 실제로 위탁사업비등에 대한 의존도는 연간 예산대비 67%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들의 연간 예산 대비 회비수입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8%로 나타났고, 연 예산대비 회비수입 비율은 평균 34.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간 예산대비 위탁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평균 58.4%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중앙정부가 42.96%, 지자체가 15.47%를 위탁사업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들의 상시인력 수는 위탁사업비 등의 비중이 높은 단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 순수 예산으로 고용된 상시고용 인력은 대부분의 단체의 경우 1-3명 수준이다. 또한 해당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사는 9곳 중 6곳이 500개사 이하이며 연간 회비 수입 율은 20-30%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정책제언

충남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1 단계는 충남지역에 다양한 개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양적성장단계이며, 제2 단계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력증진단계이고, 마지막 제3 단계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통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발전기구를 설립하는 중간지원조직 통합단계이다.

이러한 세 단계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형성되어야 함으로 현재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제1단계에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를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i)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자립 토대 구축 지원, ii) 중간지원조직의 자체 사업 개발 지원, iii)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을 코디네이터로 육성 지원, iv) 단체간 사회적 연대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과제로는 i) 정보 및 지식의 원활한 확산 체계 구축, ii)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민간 이전 추진, iii) 중간지원조직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iv)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운영, v)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책사업 참여를 통한 연구 개발능력 제고 기회 지원, vi) 지역주체들의 공동 협력사업 지원, vii) 중간지원조직 설립 육성 방안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내용 및 방법 .....	3
1) 연구내용 .....	3
2) 연구방법 .....	4
제2장 중간지원조직관련 이론적 고찰 및 선진국 사례 .....	6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고찰 .....	6
1) 중간지원조직의 논의 배경 .....	6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8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12
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	17
2. 중간지원조직의 해외 사례 .....	19
1) 핀란드의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사례 .....	19
2) 영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개발연합회 .....	23
3) 이태리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사례 : 에밀리아-로마냐 ERVET .....	27
제3장 충남 산업경제 분석 .....	37
1. 분석배경 및 범위 .....	37
1) 배경 및 목적 .....	37
2) 내용 및 범위 .....	38
2. 충남 산업경제 분석 .....	39
1) 경제활동 인구분석 .....	39
2) 산업구조 분석 .....	42
3) 지역경제 현황분석 .....	52
3. 시사점 .....	60

## 제4장 중간지원조직 조사 결과 ..... 61

1. 조사 개요 .....	61
2. 사례조직 현황 분석 .....	64
1) 단체의 성격 .....	64
2) 주요 기능과 사업내용 .....	65
3) 재정현황 .....	66
4) 인력현황 .....	67
5) 회원사현황 .....	67
6) 요약 및 시사점 .....	68
3. 실태 면접조사 결과분석 .....	70
1)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	70
2)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 .....	71
3) 제공 서비스 .....	72
4) 서비스 중 자체 사업만으로 가능한 분야 .....	73
5) 기관별 교류 현황 .....	74
6) 외부기관의 지원 현황 .....	74
7) 운영상의 애로 사항 .....	77
8) 외부 지원 요구 사항 .....	77
9)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78
4. 시사점 .....	78

## 제5장 정책제언 ..... 81

1. 정책도입 타당성 .....	81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	83
1) 정책추진방향 .....	83
2) 정책추진과제 .....	84

## 참 고 문 헌 ..... 91

## 부록 :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표 ..... 96

# 표 목 차

<표 2-1> 중간지원조직 관련 용어와 내용 .....	9
<표 2-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10
<표 2-3>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	13
<표 2-4>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개발 연합회의 활동 성과 .....	26
<표 2-5> 에밀리아-로마냐의 산업지구 .....	28
<표 2-6> ERVET 시스템의 서비스 센터 .....	33
<표 3-1> 충남 인구현황분석 .....	39
<표 3-2> 충남 시군별 인구현황분석 .....	40
<표 3-3> 충남 경제활동분석 .....	41
<표 3-4> 충남의 생산가능인구 전망 .....	41
<표 3-5> 전국대비 충남 사업체현황(2013) .....	42
<표 3-6> 충남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 .....	44
<표 3-7> 산업집적 및 산업구조변화율(종사자수 기준) .....	45
<표 3-8> 부가가치율(2013) .....	47
<표 3-9> RLP 및 고용계수 .....	49
<표 3-10> 변이할당분석(2000~2013) .....	50
<표 3-11> 산업발전 단계 .....	51
<표 3-12> 전국 연구개발비 분포 .....	52
<표 3-13> 지역 투자액 현황 .....	53
<표 3-14> 전국 수출입 분석 .....	54
<표 3-15>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56
<표 3-16> 전국 1인당 GRDP .....	57
<표 3-17> 전국재정자립도 .....	58
<표 3-18> 충남 재정자립도(2013) .....	59
<표 4-1> 조사개요 .....	62
<표 4-2> 면담 설문조사 .....	63
<표 4-3>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	71
<표 4-4> 제공 서비스 .....	72
<표 4-5> 기관별 교류 현황 .....	74
<표 4-6> 외부기관 지원 현황 .....	75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	5
<그림 2-1> 지방정부와 ERVET 시스템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30
<그림 2-2> ERVET 시스템 .....	32
<그림 3-1> 충남 산업별 포지셔닝 .....	51
<그림 3-2> 지역별 우리나라 GRDP 비율 .....	55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대도시의 성장을 토대로 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와 경제성장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주의의 고착과 국민적 분열 등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 정책은,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률적으로 형성된 지역혁신체제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당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되었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했던 충남지역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충남이 처한 지리적인 조건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제발전체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충남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합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정책적 지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개발 이론을 살펴보면,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사업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연적 전문화론, 산업지구론, 사회적 자본론, 네트워크 이론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2000년대부터는 클러스터 이론이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확실적인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사업이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범위의 경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적인 경제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네트워크의 영향에 관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충남지역의 시군지역을 사례로 하여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조직구조 및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각 조직간 연계 및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파악함으로써 사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들 중간지원조직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들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한다.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주된 연구내용으로서 ① 이론적 고찰, ② 충남 산업경제 현황 분석, ③ 충남지역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④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론적 고찰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개발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의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례에 관한 검토도 실시하였다.

##### ② 충남 산업경제 현황 분석

통계청 최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현황 및 경제분석 절차를 통하여 인구, 사회경제, 산업구조, 투자여건, 지역소득, 지방재정 등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기반을 분석하여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③ 충남지역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충남지역 전체를 활동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이들의 현황 및 사업실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충남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④ 정책제언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충남 산업경제 분석,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지역 경제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 또는 회의를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및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① 문헌조사 연구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방문면접조사 및 관계자와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주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 적용되었다. 이외에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검토도 수행하였다.

### ② 통계 분석 연구

충남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충남 산업경제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에 적용되었다. 것과 충남지역의 산업경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통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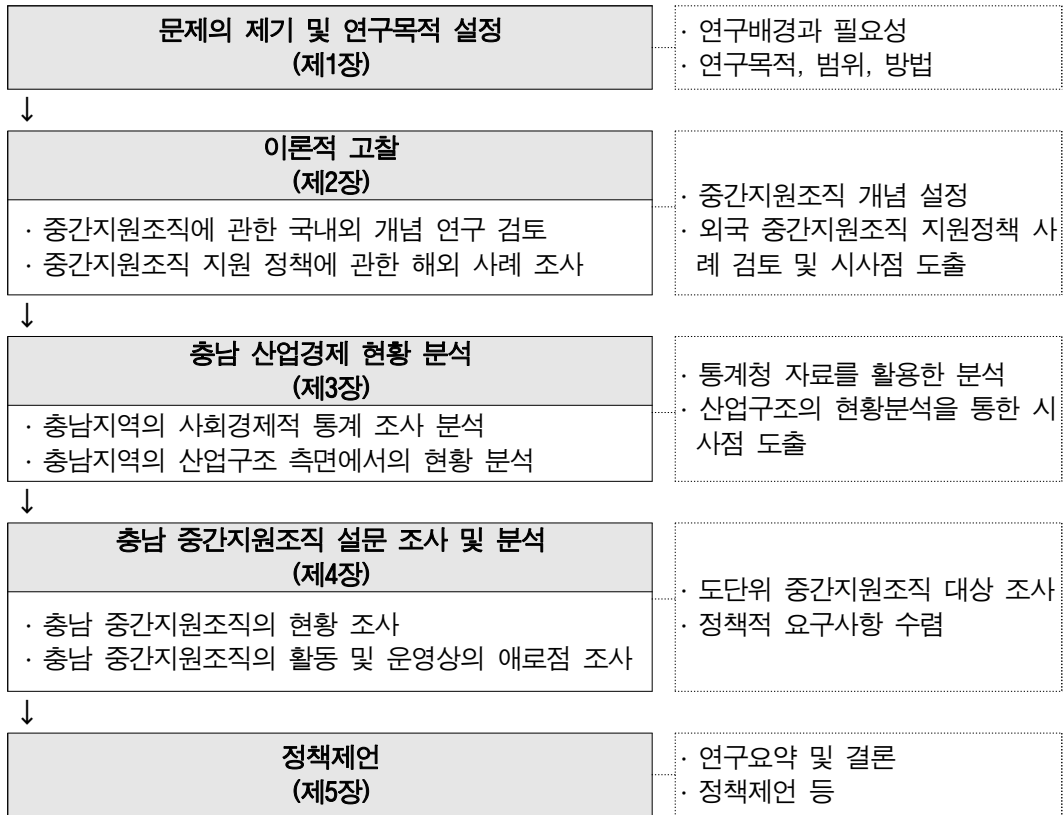
### ③ 방문 면접 설문조사

사례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토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 ④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세미나 개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애로사항과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된 연구과정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제2장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선진국 사례

###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고찰

#### 1) 중간지원조직의 논의 배경

세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제2차 대전이후부터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 수행하던 각종 경제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표되던 대기업 중심의 생산과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정부 재정의 악화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이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영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이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제발전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유도하는 각종 정책사업들이 지역의 경제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관련 단체들의 지역개발 활동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지역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다.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역개발기관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이에 근거한 정책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지역개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및 경영자문,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혁신 및 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논의가 증대된 것은 기존의 경제 성장 체계 및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요구가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에는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Blank et al.:2003).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민간영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 협력과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수행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과 민간 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 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조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송두범, 2011).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2011년에 고용노동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고, 15개의 지역별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선정되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들도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 컨설팅 회사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를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국내 연구 역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었었다(고재경·주정현, 201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논의된 것은 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능에 국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고재경 외, 2012; 고재경·주정현, 2014)에서 사회적 기업 이외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경제, 사회, 복지, 행정, 연구개발,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활동 중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Moss, 2009).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원을 16세기부터 18세기 영국에서 농업과 모직 및 섬유 산업에서 ‘중간업자(Middlemen)’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기원(Howells, 2006; Laur et al., 2012)으로 보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즉, 이들의 활동은 두 산업 간의 거래와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모직생산, 섬유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owells(2006)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명하는 용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간조직(intermediaries), 제3그룹(Third parties), 브로커(Brokers),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 agencies), 컨설턴트(Consultants as bridge builders), 중간회사(Intermediary firms), 중간매개자(Bricoleurs), (상부기관)Superstructure organizations, 지식브로커(Knowledge brokers), 중간수준관리기관(Intermediary level bodies), 혁신중간자(Innovation Intermediaries), 기술브로커(Technology brokers), 지역개발기관(Regional institutions), 경계조직(Boundary organizations), 지식중간자(Knowledge intermediaries) 등이다. 한편, Mittilä(2008)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2-1〉 중간지원조직 관련 용어와 내용

중간지원조직 용어	내용
연락사무소 (Linkage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실행주체들 사이에서 제도적 또는 문화적인 성격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li> <li>- 중간지원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기관들과 다양한 외부 제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공동협력 해야 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li> </ul>
인터페이스기관 (Interface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과 산업들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기관</li> </ul>
연결기관 (bridging instit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위한 지식적 기반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적 수요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li> </ul>
기술 브로커 (Technology bro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관들 사이에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기능</li> <li>- 정부, 대학, 산업체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창출하기도 함.</li> <li>- 기업이 현재 생산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 그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li> </ul>
이전 사무소 (Transfer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기관들과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li> </ul>
게이트키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내부적으로 확산하는 역할</li> <li>-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정보가 전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협력적인 기능을 충실히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li> </ul>
이전주체 (Transfer a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역할</li> <li>- 연구네트워크를 수립함.</li> </ul>
과학기술단지 (Science and technology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기업, 정부 간의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li> <li>- 상호 협력,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산업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li> <li>- 과학, 기술산업, 시장을 고려한다면, 과학단지는 기술산업이 핵심이고 과학과 시장이 상호 협력하는 상황이 됨.</li> </ul>

자료 : Mittilä, T. 2008.

한편, Moss(2009)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분야별로 구분하면, 회적 중간자(social intermediaries), 문화적 중간자(cultural intermediaries), 시장 중간자(market intermediaries), 노동 중간자(labour intermediaries), 지식 중간자(knowledge intermediaries), 복지중간자(welfare intermediaries), 지역계획 중간자(planning intermediaries) 등이고, 연구에 따라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개인(an individual actor)’로 보거나 ‘기관(an organisation)’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네트워크(network)’로 보거나 ‘프로그램(programme)’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하나의 ‘기관형태(organisational form)’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기능(function)’(mediating, informing, connecting, coordination 등)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문헌을 살펴보면, Howells(2006; 720)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켈로그재단 (Kellogg Foundation, 2002)도 “최소한 두 부문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2011)에서는 ‘쌍방적 또는 다자적 관계 속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코디네이터, 에이전시 기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개념을 살펴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저자	개념 정의	관련 기관
내각부 (2002)	-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인재, 자금, 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단체(NPO) 간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중간지원 NPO
Sanyal (2006)	- 중간지원 NGO는 지역단체, 전국적 조직, 국제기구 등 다양한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훈련 및 직무개발, 연구 및 옹호, 정보수집과 확산,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단체와 조직, 정부기구 등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	중간지원 NGO
Brown & Kalegaonkar (2002)	- 시민사회 지원조직(civil society support organization)은 시민사회 그룹이 임무를 성취하도록 역량강화 서비스와 자원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가치지향적인(value-based) 조직	시민사회 지원조직
Briggs (2003)	- 중간지원조직이란 연결과 지원을 통해 다른 조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	
Compass Partnership (2004)	- 인프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이란 일선의 자발적, 커뮤니티 조직을 지원, 육성, 조정, 대변, 장려하는 등 인프라스트럭처 기능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	인프라스트럭처 조직
Howard Partners (2007)	-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혁신)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적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제3자	혁신중간 지원조직
정규호 (2012)	- 중간지원조직이란 말 그대로 ‘사이’에서 ‘경계’를 넘어 지속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광역단위에서 기초 생활권까지의 수직적 연계와, 경제·사회·공간영역을 아우르는 수평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매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이미홍 외	-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교류를 코디네이트하는 조직	



(2011)		
마상진 (2011)	-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	사회적 기업
정수화 외 (2011)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 조직	사회적 기업
Technologie - Netzwerk Berlin e.V. (2001)	- 사회적 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파이낸싱,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2011)	-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희망제작소 (2008)	- 지역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창업 및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각 주체들과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 및 운영을 위한 물적, 공간적, 제도적 지원 및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료 : 고재경 외, 2012, 42p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하면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고재경 외, 201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단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명하는 가장 큰 개념적인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 간에 또는 일정 주체와 그 대상(기술, 제도 등) 간의 원활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relational work) (Moss, 2009)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을 단순히 단체나 조직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기능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체 및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이 수행하는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마상진(2011)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대부분의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활동'과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활동으로는 신규조직 설립과 관련된 컨설팅, 기존조직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 재무관련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조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타활동으로는 i) 사회적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관리기능, ii) 사무실 공간 제공 및 업무 지원 서비스, iii)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 iv) 사업관련 서비스 기능, v)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사 또는 감독 기능, vi) 사회적 기업들이 각종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직접적인 사업지원 기능, vii)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스핀오프 (spin-off) 기능 등이다.

송두범(2011)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i)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과 기술을 알선, 조정하는 기능, ii)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 iii)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 iv)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활동 등 장기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연구 등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위탁운영 등의 역할도 병행한다고 설명한다. 일본 내각부(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3〉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기능	역할
정보의 수·발신	- NPO나 행정, 기업 등 각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
자원과 기술의 중개	-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이외에 NPO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 NPO법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운영, 자금확보 등에 대응 가능한 인재양성
상담 및 컨설팅	- NPO법인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나 어려운 점을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 누구나 쉽게 참가하는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 관련 NPO를 네트워크하거나 각각의 NPO법인이 가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트 역할 수행 - 지역자원(사람, 물건, 돈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행정, NPO, 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제공
평가	- NPO활동의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실태나 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부, 기업, 개인 등 지원기관에게 제공
정책제안	-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냄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 정책 제안기능을 강화
조사연구	-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활동으로 중간지원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특정 사회이슈의 해결방안을 제시

자료: 内閣府, 『中間支援組織の現實と課題に關する調査報告書』第一總合研究所, 2002.

또 다른 한편, 외국의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파스파트너십(Compass Partnership)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i) 첫째, 정보제공과 상담, 컨설팅, 훈련, 자금 배분, 인큐베이션 시설 제공 등을 포함한 지원 및 개발(support and development) 기능, ii) 둘째, 부문 간 서비스 조정,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의 학습, 정책개발, 캠페인 등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조정(coordination) 기능, iii) 셋째, 일선 조직에 대한 컨설팅, 정부 및 민간 부문에 대해 자발적 부문을 대신하여 옹호하는 대표(representation) 기능, iv) 넷째, 연구, 정책개발 및 촉진, 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새로운 수요 파악과 시도 등 자발적 부문 활동을 촉진시키는(promotion) 기능을 들고 있다(Compass Partnership, 2004:18). 켈로그재단(Kellogg Foundation)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부문과 위계 조직 및 단체의 연결 기능, 자금제공, 기술적 지원, 훈련, 정보·연구 등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커뮤니티 단체 활

동을 촉진하는 역량강화 등을 들고 있다(Kellogg Foundation, 2002:3-4). 브라운 등(Brown and Kalegaonkar, 2002)은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 물질적 자원의 동원, 정보 및 지식의 제공, 공동 활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력구조 제공, NGO와 정부기관, 기업, 국제기구, 다른 시민단체 등과의 가교 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고재경 외(2012)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역 단체에 대한 지원 서비스 (support service) 기능으로 지역사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비영리 기관, 커뮤니티 조직, 정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다. 둘째,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능으로서 특화된 기술, 전문성, 지식, 네트워크, 영향력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부문,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셋째, 대변인 (representation) 기능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기구나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활동부문이나 관련 단체들의 임무와 요구를 옹호하는 대변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들이 관련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화하면서 공동의 자원과 정체성을 제공하는데, 이때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조정(coordination) 기능으로서 단독으로 활동하는 여러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며,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행정, 기업, 비영리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조정하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자원동원과 네트워킹(Mobilization and networking) 기능으로서 지역 내외의 단체와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맺고 목표가 동일한 단체들을 결합하여 교류, 협력을 촉진하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의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책효과성 제고 기능으로서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각 단체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한다.

한편, 지역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Howells(2006)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기술이전 및 확산(Technology transfer and diffusion) 기능이다. 이 역할은 중간지원조직들이 가계나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확산시키고 그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게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 공여자와 수혜자를 발견하여 연결시키고 보완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연계하여 관련 기업들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기업들이 각종 기술 거래의 계약 및 면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간지원적인 활동 및 이를 수행하는 회사의 혁신적인 역할 관리 기능이다. 이는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일반 대중들, 기관, 산업 간 지식과 기술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은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고객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결합하여 다른 주체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Hargadon and Sutton, 1997) 또한 다른 기업의 기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McEvily and Zaheer, 1999)도 수행한다.

셋째는 혁신시스템과 네트워크(Innovation systems and networks)의 형성 및 유지기능이다. 이것은 중간지원조직인 일종의 상부구조 기관(Superstructure organisation)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회원사들에게 집단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하부구조 기업(substructure firms)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중간적인 기업(Intermediary firms), 연결기관(Bridging institutions), 혁신 커뮤니티(Innovation communities)<sup>1)</sup>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연구지원기관, 기타 출연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도적인 중간지원적인 역할

1) 이들 각각의 용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중간적인 기업(Intermediary firms)은 개별 회사들의 요구에 대해 시장에서 전문적인 해결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연결기관(Bridging institutions)은 기술체계 내에서 기업 간의 연계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고, 혁신 커뮤니티(Innovation communities)은 혁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거나 연결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라는 것이다.

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책과 실행 간에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an der Meulen and Rip, 1998)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을 모두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순기능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안되고,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에 따라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ittila(2008)는 중간지원조직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모든 사업체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사업체들은 대부분 다른 사업체들과 거래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중간 사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Mittila(2008)는 중간지원조직을 제3기관으로 간주하고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중재자(mediator)의 역할로서 두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발견하고 두 기관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임승차자(*tertius gaudens*)의 역할로서 다양한 갈등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실행주체들 중의 한 기관과 연계를 형성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이들은 적극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방해자(*oppressor*)의 역할로서 자신들이 지배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고의로 다양한 갈등을 조성하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특히 지역경제발전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상호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독점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경제일 경우에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기술혁신과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네트워킹 기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특정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중간지원조직은 그 운영주체나 활동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1) 운영주체에 의한 구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위탁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1; 김재현 외, 2011). 관 주도형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서 정책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성은 있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의도가 사업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주도형은 민간주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른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탁형은 설립은 정부에서 주도하지만 그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 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운영구조 및 자원동원방식에 따른 구분

중간지원조직은 그 운영구조와 자원동원방식에 따라 컨설팅형, 연합체형, 컨소시엄형, 및 그룹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마상진, 2011). 컨설팅형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각종 기업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이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주로 컨설팅 서비스에 따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연합체형은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단체나 조직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경우로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회원들의 연합체로서 대표자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조직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종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컨소시엄형은 지역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의 사업적 실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업체들에게 각종 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형태이다.

그룹형은 지역적 동질성 또는 특정한 연대적 동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경영을 공유하면서 그룹 내 하위 조직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형태이다. 특정한 그룹의 이해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등 활동의 파급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 (3) 주요 활동 영역에 따른 구분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활동 영역에 따른 분류로서 협력형, 옹호형, 자원중개형, 역량강화형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재경 외, 2012). 중간지원조직은 여러 유형의 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력형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이며, 옹호형은 인식 증진이나 제도 개선 등에 목표를 두고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자원중개형은 자원을 끌어 모아, 이를 중개하고 배분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역량강화형은 훈련, 컨설팅, 기술적 지원 제공을 통해 조직이나 단체의 역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 (4) 서비스 내용에 따른 구분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종합지원형과 특화분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현 외, 2011). 종합지원형은 모든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지원하는 대상 또한 정부부처, 행정,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화분야형은 해당 조직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만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유형으로, 환경 분야·복지분야·농업분야·예술분야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지원한다.

#### (5)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현 외, 2011). 광역형은 전국 단위, 광역 단위의 활동을 하는 형태로서 중앙을 아우르거나 또는 도 단위 및 2~3개 이상의 지자체를 아우르는 범위라 할 수 있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이를 보급·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형은 지자체 단위 또는 구·면단위에서의 지원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지역밀착형의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2. 중간지원조직의 해외 사례

### 1) 핀란드의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사례

#### (1) 사례 지역 소개

핀란드의 Tampere 지역과 Satakunta 지역에서 활동하는 두 가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Tampere 지역 (Tampere Region)

Tampere 지역은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으로서 각종 산업, 상업, 서비스, 교육 등의 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6개 하위 시(cities)와 28개 자치구(municipal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총 47만 명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클러스터 방식

의 산업정책을 지난 15년 간 실시하여 신규 산업클러스터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 산업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중심적인 도시는 Tampere city로서 1779년에 세워진 핀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Tampere 지역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2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Tampere는 다양한 클러스터 기반 도시로서 시 지역 내에 구성된 클러스터와 중심기업이나 기관을 살펴보면; ICT(Hermia Ltd), 건강 및 바이오테크놀로지(Finn Medi-Research Ltd), 기계 및 자동화(Hermia Ltd), 전문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미디어와 통신 포함)(Professia Ltd, Technopolis Ventures Professia Ltd), 관광(Tampere 시청), 모임산업(Meeting Industry)(Tampere Convention Bureau Ltd) 등이다.

## ② 사타쿤타 지역(Satakunta Region)

사타쿤타 지역은 핀란드 남서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Tampere 지역과 이웃하고 있다. 이 지역도 총 26개의 자치구(26 municipal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Tampere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약 23만 명정도이다. 사타쿤타 지역의 중심도시는 포리(Pori)시로서 1558년에 세워진 유서깊은 도시이지만 인구는 7만 6천 여명이고 핀란드에서 10번째 도시이다. 이 도시는 1970년대 경제적 쇠퇴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로 현재는 이전보다 경제적 기반이 좀 더 다양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타쿤타의 지역개발은 세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북사타쿤타개발센터(Northern Satakunta Development Centre Ltd)로서 이는 7개 자치구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다음으로 포리지역개발청(Pori Regional Development Agency Ltd)은 2003년에 Pori 지역의 지역개발센터로 시작된 기관이며, 라우만지역개발청(Rauman Seuden Kehitys Oy(RSK)(Raum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Ltd)은 8개 자치구의 출자로 설립된 기관으로 라우만시의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타쿤타 지역의 사이언스파크인 프리즈텍(Prizztech Ltd)와 ENTER 기업 서비스(Job and Society partner)가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개발프로젝트로는 '전문가센터 Centre of Expertise' 프로그램 등이 있다.

## (2) 중간지원조직의 성격 및 활동내용

### ① Tampere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프로페시아'(Professia Ltd)

프로페시아는 컨설팅개발회사로서 2002년에 기술지향적인 회사인 Hermia Ltd의 카운터파트너로 설립되었으며, Tampere 시청과 Tampere 대학교, FVCA의 공동투자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2006년에 지역의 다른 개발관련 기관과 합병하여 현재는 4개 기관이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다.

프로페시아의 업무는 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i)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시청 등에 자문하는 사업, ii) 사업개발 서비스로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 각종 정보 제공, 전문 분야 서비스, 교육훈련 제공 그리고 각 기업체의 특정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iii) 창업보육 기능을 위해서 TIBO 운영하면서 Tampere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각종 기업에게 지역, 각종 지원시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프로페시아(Professia)는 대부분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Tampere시와의 관계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Tampere 지역의 다른 자치구에 대한 사업 자문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보육기관인 TIBO business에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서 사업운영 기업으로 선정되어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서비스와 관련해서 Tampere 지역에서 창업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세 개 기관 중에 하나이며, 지역상공회의소 및 기업체연합회와 협력하는 기관이지만 이들 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주체이다.

프로페시아는 공공기관의 투자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는 영리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자체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프로페시아의 2005년도 총매출액은 1.5백만유로, (약 22억 원 정도)이며, 순이익은 6만 유로(약 9천만원 정도)를 얻었다. 이 회사는 총 15명의 상근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120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2006년 4월 현재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짧게는 2주에서 2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페시아는 2007년 말에 대주주 지분이 테크노폴리스 벤처(Technopolis Ventures)회사에 인수되어 회사 명칭을 '테크노폴리스 벤처 프로페시아(Technopolis Ventures Professia Ltd)로 개칭하였으며 상근직 직원도 8명으로 줄었다.

## ② 사타쿤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프리츠텍(Prizztech Ltd)’

프리츠텍은 전문적인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기관으로서 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서비스 및 각종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프리츠텍은 일종의 지역개발회사로서 국가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행정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사타쿤타 테크노빌리지 (Satakunnan Teknologia Oy(Technology village of Satakunta Lt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 회사의 부지를 포리(Pori)시청에 매각하고 이름을 프리츠텍(Prizztech)으로 개칭한 것이다. 이 회사의 주요 소유자는 Pori 시청으로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공공기관과 민간회사를 포함해서 총 16개 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다. 프리츠텍은 지역에서 각 실행 주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방식은 코디네이터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그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프리츠텍의 조직은 연구개발 부서, 사타쿤타 전문가 센터(The Satakunta Centre of Expertise), 사업혁신센터(Business and Innovation Service Centr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지역적,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지역개발기관과 사업관련 조직 및 커뮤니티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프리츠텍의 2006년 총매출액은 6.7백만 유로(약 100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프리츠텍은 공공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유가 허용되지 않지만 자금 융통과 관련해서 특정한 프로젝트 관련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약 2,000유로(약 300만원 정도)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결과 2006년에 약 1,400 유로정도의 이익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프리츠텍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60여명의 전문가를 갖고 있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7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회사의 상근직원은 2006년에 약 56명이었으며,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약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2) 영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개발연합회 (East End Community Development Alliance)

### (1) 지역개황 및 형성 동기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의 고향이기도 한 뉴캐슬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 철도, 조선, 기계 등의 중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지만 1970년대 이후 이들 중공업의 쇠퇴에 따라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퇴를 경험한 지역이다. 이중 뉴캐슬의 동부지역은 약 7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재생사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뉴캐슬의 다른 지역이 1990년대에 단일재생사업예산의 지원으로 지역재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부지역은 1996년 뉴캐슬 시청의 주도하에 동부지역 파트너십(East End Partnership)이 단일지역재생예산 8,200만 파운드의 예산을 받기 전까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역 시민단체의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집약되지 못하고, 지역 커뮤니티간의 반목과 경쟁도 증가하여 효과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 이러던 와중에 2000년에 HealthWORKS East가 단일지역재생사업예산과 EU의 ESF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개발사업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HealthWORKS East는 지역개발예산 담당기관(Funding control steering group)과 실제 지역개발 담당자(Development Workers), 그리고 중개 상담자(Link workers) 등의 3자 협력모델을 적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3자 협력모델에 기반을 두고 보건 의료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에 형성된 것이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 개발 연합회이다.

### (2) 비전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 개발 연합회는 “뉴캐슬 동부지역 커뮤니티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하위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뉴캐슬 동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셋째, 지역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 능력향상 기금(Community Capacity Building Fund)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넷째, 지역 주민 각자 또는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 시민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상담자(Link worker)를 파견한다 등이다.

### (3) 활용자원

연합회는 개인 또는 기관회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회 회원의 구성을 보면, 뉴캐슬 동부지역에서 커뮤니티 개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연합회의 회원이며 정회원(full member)과 제후회원(associate member)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연합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며 각종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회의에서 선발될 경우 실제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후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는데,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경우 개인회원으로 분류되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단체인 경우 단체회원으로 가입된다. 2009년 현재 정회원은 30개 기관이며 제후회원은 62개 기관이다.

### (4) 활동 내용 및 성과

기본적인 활동은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향상시킨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원칙은 i)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표준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ii) 지역 커뮤니티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기회, 권리 및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iii) 지역 커뮤니티가 활동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iv) 실천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한다. v)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법은 실제 연합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 행사 개최, 자문 및 상담, 보조금 지원관련 상담, 능력향상 지원, 교육훈련,

기획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첫째, 연합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 소식지 제작, 이메일 및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전달, 웹사이트 제작 및 활용,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 입수 및 정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격월로 비공식적인 커피 좌담회를 개최하여 직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공식적 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하거나 외부 세미나 및 발표회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행하는 데, 간단한 정보에 대한 상담부터 각종 조직들의 운영 및 재정확보 전략에 대한 상담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관련 상담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액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아이디어의 발전, 문서작성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 현재 커뮤니티 능력향상 기금(Community Capacity Building Fund)와 작은불꽃 기금(Small Sparks)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는 주민들의 능력향상(Capacity Building)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행사 기획 및 진행, 다양한 활동의 운영 방법, 새로운 단체의 형성 방법, 출판물의 기획 및 디자인, 조직체계 구축, 교육훈련 방법 및 기회제공 등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STEPS(steps to Excellence for Personal Success)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외국인 피신자에 대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개발 입문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많은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다섯째, 기타 활동으로는 뉴캐슬 및 영국 북동부 지역의 개발전략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지역 내부에 파급시키고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즉, 단순히 서비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역에 형성하도록 추진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 개발 연합회의 2009년 활동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4〉 뉴캐슬 동부커뮤니티개발 연합회의 활동 성과

- 
- 소식지 4회 발행, 개인 및 기관회원에게 162부 배포
  - 개인 및 기관에게 269회 정보제공
  - 55개의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10회의 네트워크 모임 개최
  - 지역 커뮤니티 학습 컨퍼런스 2회 개최
  - 지역 커뮤니티 발전 컨퍼런스 1회 개최
  - 워커지역 프로젝트 운영이사회에 2인의 대표자 참여
  - 오스본 지역 프로젝트 운영이사회에 2인의 대표자 참여
  - 커뮤니티 능력향상 기금에서 총 31,000 파운드의 지원금을 27개 소규모 사업에 지원함.
  - 51명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11시간 제공
  - 18명의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종사자에게 커뮤니티 개발 교육훈련 62.5시간 제공
  - 6개의 지역 시민단체와 피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공
  - 9개 지역 시민단체에게 총 6,253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상담 제공
  - 47개 지역 시민단체에 중개상담자(Linkworker)를 파견하여 직접 상담 제공
- 

(6) 시사점

이러한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 개발 연합회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지역 커뮤니티 개발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 시행, 조정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캐슬 동부 커뮤니티 개발 연합회는 기존에 지역에 존재하던 주요 커뮤니티 개발 관련 단체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기관이다. 단순히 재정지원의 창구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보의 제공,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방안 제시, 교육훈련 제공, 새로운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의 형성 등 지속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소의 고용인력 6명의 직원으로 관리 및 지역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 기금, 기부금, 회원들의 회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합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연합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각종 사업이나 기부금 조달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재원 충당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사업 지원방식이 단순히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개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역의 자



을적인 활동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방식이 지역의 파트너십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 각종 권한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이태리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사례 : 에밀리아-로마냐 ERVET<sup>2)</sup>

#### (1) 사례 지역 소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이태리 반도 북동부 포강유역 평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는 4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1인당 GDP가 약 25,000유로이며 이태리 GDP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지만 현재는 섬유,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13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구들이 이 지역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아래의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카르피(Carpi)를 중심으로 한 섬유 및 의류 산업지구와, 모데나와 에밀리아 지역(Reggio Emilia)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 제품 산업지구 및 농기계 산업지구를 비롯해, 신발산업, 목재생산기계산업, 실내장식가구산업, 식료품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노동자의 64% 정도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소기업이 사실상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특정분야 전문화된 산업지구 내에 집적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한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는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였다(Pyke, 1994). 이들을 중심으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경제시스템의 성공은 산업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협의회(industry associations)의 설립과 운영이었다. 즉, 이러한 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들 간의 상호협력이 증가하고 각종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중소기업들 간의 독특한 네트워크가 발현한 것이다.

---

2) 이철우 외 (2003)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표 2-5〉 에밀리아-로마냐의 산업지구

산업부문	지역	고용자수	중소기업 밀도(%)	지역의존도
섬유의류	Carpi(MO)	12,692	99.30	높음
신발	Fusignano(RA)	666	92.90	높음
신발	S. Mauro Pascscoli(FO)	3,000	93.70	높음
모터사이클	Bologna	2,378	82.90	낮음
세라믹 제품	Modena_Reggio Emilia	22,000	55.70	높음
포장기계	Bologna	7,140	80.00	낮음
농기계	Modena-Reggio Emilia	17,965	85.20	높음
Biomedical 제품	Mirandola(MO)	2,300	85.00	보통
목재생산기계	Rimini	1,345	87.20	낮음
목재생산기계	Carpi(MO)	1,155	77.20	낮음
실내장식가구	Forli	900	97.00	낮음
기계장비	Piacenza	800	20.00	낮음
식품품 제조	Parma	9,239	98.10	보통

주1. 지역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기업들 가운데 50인 이하 소기업의 비중.

주2.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지역생산시스템의 의존도.

자료 : DelNet & ASTER, 2002.

## (2) 중간지원조직의 발전과정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지역의 제1단계 발전과정은 물적 기반구축기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산업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이다. 그리고 제2단계는 제조업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별·산업별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게 된 시기인데, 1972년에 에밀리아-로마냐를 비롯한 이탈리아 개별 지역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시작되었고,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는 1974년에 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발전기구로서 ERVET SpA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의 민간경제주체들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구이다.

주정부를 대신하여 지역 개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및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ERVET SpArk 설립된 이후 산업별 리얼 서비스 센터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산업별 서비스 센터들 가운데 가장 먼저(1976년) 설립된 세라믹 산업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세라믹 센터를 필두로, 1980년에 카르피의 특화 산업인 의섬유 제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센터인 CITER(의류·패션 서비스 센터)가 카르피에 설립되었다. 그 후 CESMA(농기계 기술센터), CERCAL(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능별·산업별 서비스 센터들이 해당 산업이 특화된 지역들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된 주요 목적은 각 산업지구의 특화된 산업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Bellini & Pasquini,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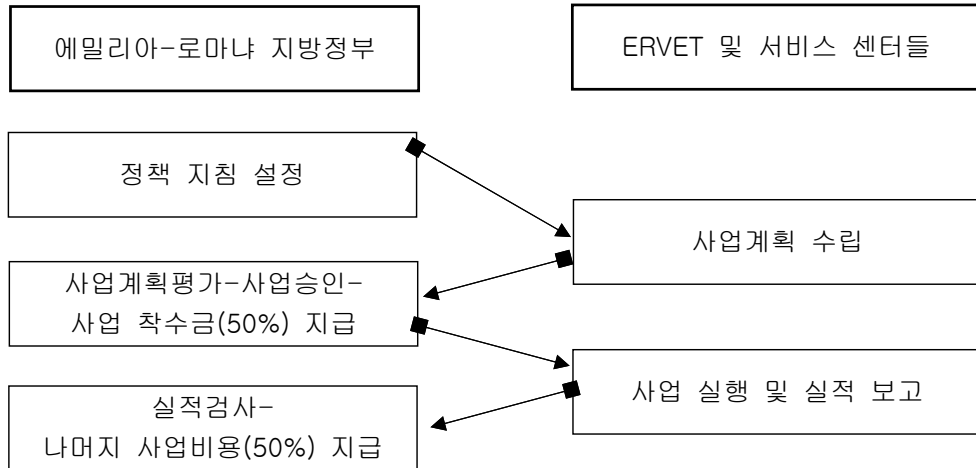
제3단계는 전 산업에 걸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수평적)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시기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제조업 지원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에밀리아-로마냐의 지역기술이전센터인 ASTER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연구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3) ERVET SpA의 역할 및 운영체계

ERVET SpA는 민-관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ERVET SpA의 소유권 구조를 살펴보면,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가 지분의 80.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는 지역 금융기관(18.51%), 지역상공회의소들과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하위 지방자치단체(0.92%) 및 지역의 산업협회(0.53%)가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RVET SpA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법인체(이철우 외, 2003)라고 할 수 있다.

ERVET SpA의 주요 기능은 지방정부 및 지역행정기관이 정책을 구성하고 입안하는 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지원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ERVET SpArk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제품 및 공정 테스트 서비스, 계획의 입안과 실행한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평가 등이 포함됨.

또한 ERVET SpA는 산업인력의 교육·훈련, 토지이용, 환경, 관광, 농업, 사회서비스, 도시 개발 및 재활성화, 그리고 교통체계 등과 같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이철우 외, 2003).



자료 : Bellini and Pasquini, 1998; 이철우, 2003 재인용.

〈그림 2-1〉 지방정부와 ERVET 시스템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ERVET SpA의 운영시스템은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는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입안자 역할을 수행하고, ERVET SpA는 주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밀리아-로마냐의 지역산업정책 결정에 주요한 보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이를 직접 실행하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우선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가 매년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ERVET 시스템에 통고하면, ERVET SpA와 각 서비스 센터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적이며 실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주정부는 ERVET 시스템의 각 센터들이 수립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취합·검토하여 시의성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승인한 후 ERVET SpA를 비롯한 해당 사업 주체에 사업 착수금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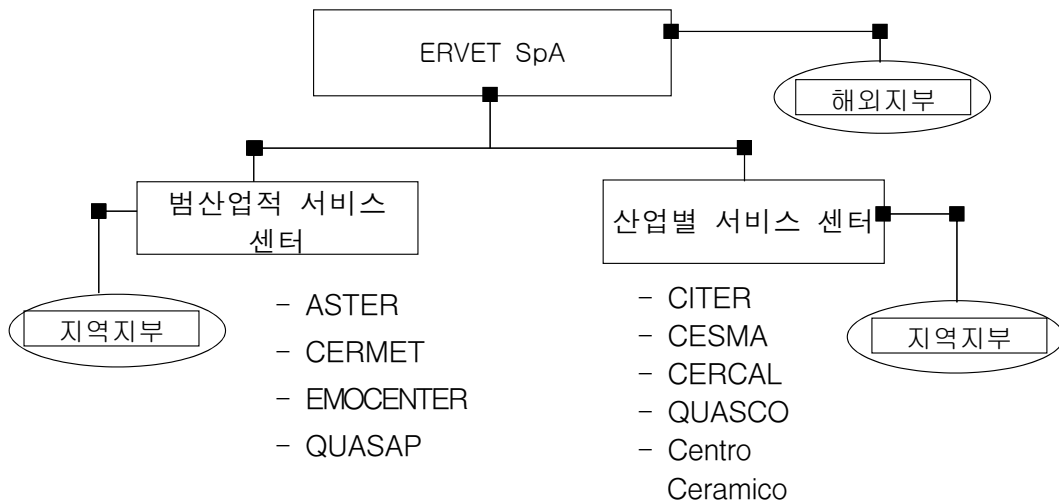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주정부는 사업 중간평가 작업을 통해 실적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개발 및 혁신관련 사업의 추진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ERVET 시스템 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4) ERVET 시스템의 조직 및 서비스 센터의 역할

##### ① ERVET 시스템의 조직

1970년대 후반에 에밀리아-로마냐의 각 산업지구에 집적된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에 기초한 유연적이고 전문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국지적인 사회적 분업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유연한 생산력과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력을 바탕으로 경제현상의 변화과정에 성공적인 적응력을 보였다(Amin, 1999; DelNet & ASTER, 2002). 이러한 시점에서 ERVET SpA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각 산업지구별 특성에 맞춘 리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Brusco, 1982; 1992). 이에 따라 카르피의 섬유·패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ITER, 모데나의 농기계산업 지원을 위한 CESMA, 그리고 산모리 파스콜리의 신발·가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ERCAL 등과 같이 업종별 '리얼 서비스 센터'들이 산업지구별로 잇따라 설립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특정 산업을 초월하여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전체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정책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로는 지역기술이전의 촉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ASTER와 제품 및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연구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CERMET 등이 대표적이다(Cooke & Morgsn, 1998; DelNet & ASTER, 2002). 그 후 1990년도에 산업자동화 서비스 센터인 DEMOCENTER가 모데나에 설립되면서 ERVET SpA와 9개의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ERVET SpA는 모조적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별 서비스 센터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 수평적인 관계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료: 이철우 외, 2003.

〈그림 2-2〉 ERVET 시스템

ERVET 시스템의 전체적인 체계는 다음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ERVET SpA는 개별 서비스 센터들이 활동목적과 활동방향을 정하고 혁신적인 기업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위 서비스 센터들을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간의 기업지원 서비스에 있어 성과의 차이는 서비스의 성격, 산업부문, 리더십, 운영 시스템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신만의 역량으로 기업들에게 시장 및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가 있는 반면 여전히 공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센터들도 있다(이철우 외, 2003).

ERVET 시스템의 서비스 센터들은 크게 산업별 서비스 센터와 범 산업서비스 센터로 구분된다.(<표 2-6> 참고). 전자는 산업지구별로 특화된 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자는 혁신, 기술이전, 그리고 생산 자동화 등과 같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관심분야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를 전 산업분야에 제공한다(Cooke & Morgan, 1998; Williams, 2002). 업종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산업지구에 입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산업 지원센터인 CITER는 네트워크 산업지구로 유명한 카르피에, 신발산업 지원센터인 CERCAL은 신발산업의 중심지인 산 모로 파스콜리(San Mauro Pascoli)에, 농기계 서비스 센터인 CESMA는 농기계 산업지구를 형성

하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에, 그리고 세라믹산업 연구·시험센터인 Centro Ceramico는 세라믹 산업지구인 볼로냐에 각각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전체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들은 모두가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볼로냐와 모데나에 입지하고 있다. 지역기술이전센터인 ASTER와 품질연구·인증센터인 CERMET가 볼로냐에 그리고 산업자동화 서비스 센터인 DEMO-CENTER가 모데나에 위치하고 있다.

〈표 2-6〉 ERVET 시스템의 서비스 센터

센터명	활동분야	입지	설립 년도	ERVET 지분	고용
산업별 서비스 센터					
CITER	섬유정보센터	Carpi	1980	25.0%	19
CESMA	농기계기술센터	Reggio Emilia	1983	40.0%	7
CERCAL	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	San Mauro Pascoli	1983	47.0%	6
Centro Ceramico	건설산업 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6	44.1%	11
	세라믹산업 연구·시험센터	Bologna/Sassuolo	1976	-	40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					
ASTER	지역기술이전센터	Bologna	1985	72.9%	31
CERMET	품질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5	32.0%	40
DEMOCENTER	산업자동화 서비스 센터	Modena	1990	29.2%	-
QUASAP	공공사업 수발주 관리센터	Bologna	-	-	-

자료: 이철우 외, 2003.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경제는 침체위기에 접어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ERVET SpA와 리얼서비스 센터들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조사가 시행되었는데, 평가결과 기업지원 성과가 미진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는 몇몇 서비스 센터들은 그 필요성에 따라 폐쇄하거나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성과가 양호한 서비스 센터들의 기능은 더욱 고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ERVET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3년 4월에 개정된 「지방정부법 No. 25」가 통과되고 이

법률을 기반으로 ERVET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Bellini & Pasquini, 1998). 그러나 ERVET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ERVET 시스템은 에밀리아-로마냐의 지역혁신체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끌어냈다(Cooke & Morgan, 1998).

1990년대 중반 이후 ERVET 시스템이 실시하는 정책들은 더 이상 지역생산체제의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제공해줄 수 없는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과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DelNet & ASTER, 2002). 따라서 정책 수립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서전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즉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역의 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기업들 및 협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산업이 나아갈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시행하게 되었다.

## ② 리얼 서비스 센터의 역할

리얼 서비스 센터의 주요 활동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기술이전, 제품 테스트 및 시연, 제품 및 생산공정에 대한 품질 인증, 기술 및 시장 동향 등 각종 사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들 ERVET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리얼 서비스 센터들 가운데 지역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인 ASTER와 산업별 서비스 센터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도 평가받는 CITER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 (a) ASTER(지역기술이전센터)

ASTER(Emilia-Romagna Technological Development Agency)는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범산업적 기술이전센터로서 1985년 에밀리아-로마냐 정부와 ERVET SpA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ASTER가 보유한 총 자본의 규모는 52만 유로이며, 지분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모조직인 ERVET SpArk 37%, ENEA(10%)와 CNR(20%)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30%, 볼로냐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 대학들이 20%, 지역상공회의소와 기업협회들이 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이철우 외, 2003).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역중소기업들에게 대학이나 연구소(ENEA, CNR)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지역중소기업들에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985년에 ASTER를 설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STER는 기술이전과 혁신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경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국내외의 기술이전 파트너 탐색, 기술정보 제공, 자금 조달,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기관들과의 대외관계 중계 등의 측면에서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Bellini & Pasquini, 1998). 이와 더불어 ASTER는 기술이전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역중소기업들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뉴얼, 가이드,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과 같은 명시적 형태의 지식화 작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에 다양한 학습채널(Gettler, 2001)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ASTER는 지역중소기업들과 지역대학 및 연구소를 포괄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산·학·연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ASTER를 비롯해 지역 주요 대학들인 볼로냐 대학교, 모데나 대학교, 페라라 대학교와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 산업협회, 그리고 중앙정부산하 연구기관인 CNR(국립과학기술연구원) 및 ENEA(국립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 등이 있다(이철우 외, 2003). ASTER는 이러한 지역 내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혁신 노하우와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혁신 선도자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b) CITER(의류·패션산업정보센터)

카르피에 소재한 섬유산업정보센터인 CITER(Centro Informa-azione Tessile Emilia-Romagna)는 카르피 니트웨어 산업지구의 중소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진 경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1980년에 지역중소기업들과 ERVET SpA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서비스 센터이다(Bellini & Pasquini, 1998; Cooke & Morgan, 1998). CITER의 자본규모는 20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ERVET SpA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이 출자한 지분이 57.7%, 의류·패션산업관련 협회들이 11.5%를 보유해 민간기업 및 협회 보유지분이 약 70%에 달한다. 이러한 소유권 구조는 대

학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소유권 구조를 가진 ASTER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구조의 차이는 서비스 센터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ASTER의 경우 서비스의 성격이 CITER와 같은 특정 산업수요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CITER의 주된 역할은 패션동향(컬러, 재로, 주제), 시장,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정보서비스 제공, 시장개척, 소비 동향 분석, 기술혁신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중소규모 의류제조 업체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ITER는 새로운 시장, 장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섬유업체들의 일상적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ITER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지역의 섬유·의류업체가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필요한 패션흐름의 방향을 읽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CITER의 활동이 지역의 모든 관련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중소기업들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CITER의 활동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CITER 또한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영자금,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이 조정되면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다. 둘째, CITER는 지역기업들 간 노하우의 공유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선도적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센터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 제3장 충남 산업경제 분석

### 1. 분석배경 및 범위

#### 1)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학계나 산업현장에서 최근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던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의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다. 지역 발전에서의 경제발전은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 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 육성, 정부기관의 이전과 같은 수단적 방법 등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분야와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분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지역발전의 개념 속에서 충남지역의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함에 앞서 충남의 지속성장 관점의 산업경제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충남지역의 산업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경제기반이론의 특징에 따라 각 공간단위의 지역의 성장활동이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격차 및 저발전지역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과 연계된 지역정책에서 중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발전은 공간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의 경제기반 강화는 한 지역의 성장을 가져

오게 되고 경제공간(economic space)의 중심으로 역할한다는 점에서 각 공간단위의 경제기반 강화가 지역개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성과 위상을 재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성장활동과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원활동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 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활동이 활발하여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을 지역 밖의 시장에 공급하게 되어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다시 지역의 성장활동이 확대되고 이를 지원하는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원활동이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지역의 성장활동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에 대한 시사점 도출은 개념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2) 내용 및 범위

본 장에서는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관점의 산업경제 분석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료의 구성과 분석을 통하여 충남지역의 지속발전 관점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중요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 방향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지표는 통계청 최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황 및 경제분석 절차를 통하여 인구, 사회경제, 산업구조, 투자여건, 지역소득, 지방재정 등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기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의 내용은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기반들에 대한 중요 지표의 내용적 정리와 시사점의 도출이며 시간적 범위는 통계청 최신의 중요통계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의 획득은 통계청의 지방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획득된 통계의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 2. 충남 산업경제 분석

### 1) 경제활동 인구분석

전국 대비 충남의 인구현황의 특징으로는, 인구수 증가세와 전국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2015년에도 65세 이상 인구의 전국비중이 총인구 평균(4.1%)을 1.1%p 상회한 5.2%이지만 증가세가 전국에 비해 낮으나, 생산가능 인구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증가세도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1〉 충남 인구현황분석

인구구조, 부양비별	2000			2015			CAGR	
	전국	충남	비중(%)	전국	충남	비중(%)	전국	충남
총인구 (명)	47,008,111	1,879,273	4.0	50,617,045	2,089,470	4.1	0.49	0.71
남자 (명)	23,666,769	947,749	4.0	25,302,520	1,067,608	4.2	0.45	0.80
여자 (명)	23,341,342	931,524	4.0	25,314,525	1,021,862	4.0	0.54	0.62
성비(여자1백명당)	101.4	101.7		100.0	104.5			
인구성장률 (%)	0.84	0.51		0.38	0.51			
인구구성비 (%)	-	-		100.0	4.1			
0-14세 인구 (명)	9,911,229	378,249	3.8	7,039,594	299,563	4.3	-2.25	-1.54
15-64세 인구 (명)	33,701,986	1,277,523	3.8	36,953,331	1,444,992	3.9	0.62	0.82
65세 이상 인구 (명)	3,394,896	223,501	6.6	6,624,120	344,915	5.2	4.56	2.93
- 구성비:0-14세 (%)	21.1	20.1		13.9	14.3			
- 구성비:15-64세 (%)	71.7	68.0		73.0	69.2			
- 구성비:65세 이상 (%)	7.2	11.9		13.1	16.5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1백명당)	39.5	47.1		37.0	44.6		-0.43	-0.36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백명당)	29.4	29.6		19.0	20.7		-2.87	-2.36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백명당)	10.1	17.5		17.9	23.9		3.89	2.10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34.3	59.1		94.1	115.1		6.96	4.54
중위연령 (세)	31.8	34.0		40.8	41.4		1.68	1.32
중위연령-남자 (세)	30.8	32.3		39.5	39.9		1.67	1.42
중위연령-여자 (세)	32.7	35.9		42.1	43.1		1.70	1.23

자료 : KOSIS 2014년 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2010년까지는 확정인구)

-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
-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유소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100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 노령화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인구)의 비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충남 시군별 인구전체의 비중과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천안, 아산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43.1%, 서산, 당진을 포함하면 59.1%며 이들 4개시들은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로 충남 서북부에 위치하면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등 전체 15개 시군의 인구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인구구성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를 충남 시군별로 살펴보면 앞선 살펴본 전국대비 높은 비중에 이어 청양군과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등 충남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충남의 지속성장에 인구의 지역불균형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의 저하가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표 3-2〉 충남 시군별 인구현황분석

행정구역	2000		2014			CAGR(%)	
	계	65세이상	계	비중(%)	65세이상	계	65세이상
충청남도	1,920,467	254,321	2,041,139		424,352	0.44	3.72
1 천안시	412,218	30,339	591,142	29.0	66,056	2.61	5.72
2 아산시	182,405	20,523	288,652	14.1	40,917	3.33	5.05
3 서산시	150,396	17,868	165,957	8.1	33,650	0.71	4.63
4 당진시	123,540	17,772	160,403	7.9	33,273	1.88	4.58
5 논산시	143,439	21,924	124,063	6.1	34,999	-1.03	3.40
6 공주시	136,204	20,363	114,096	5.6	29,961	-1.26	2.80
7 보령시	119,613	16,159	103,815	5.1	27,744	-1.01	3.94
8 홍성군	96,329	15,671	90,080	4.4	25,672	-0.48	3.59
9 예산군	102,598	16,915	84,451	4.1	27,046	-1.38	3.41
10 부여군	93,856	17,686	71,441	3.5	26,514	-1.93	2.93
11 태안군	68,954	10,538	62,061	3.0	19,907	-0.75	4.65
12 서천군	76,606	15,080	57,546	2.8	23,026	-2.02	3.07
13 금산군	64,901	11,381	54,835	2.7	17,981	-1.20	3.32
14 계룡시	27,136	1,716	40,609	2.0	4,499	2.92	7.13
15 청양군	41,567	8,615	31,990	1.6	13,110	-1.85	3.04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12년부터 세종시의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됨에 따라 비교를 위해 2000년 자료에서 연기군은 제외

주: 〈표 3-1〉에서는 인구추계를 〈표 3-2〉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여 2000년 충남의 총인구의 차이 발생

충남 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5세 이상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전국대비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율은 낮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3〉 충남 경제활동분석

구분 시도별	2000		2014		CAGR(%)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15세이상인구 (천명)	36,186	1,459	42,513	1,855	1.16	1.73
경제활동인구 (천명)	22,134	917	26,536	1,198	1.30	1.93
취업자 (천명)	21,156	891	25,599	1,158	1.37	1.89
실업자 (천명)	979	26	937	40	-0.31	3.12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4,052	542	15,977	657	0.92	1.38
경제활동참가율 (%)	61.2	62.9	62.4	64.6	0.14	0.19
실업률 (%)	4.4	2.8	3.5	3.4	-1.62	1.40
고용률 (%)	58.5	61.1	60.2	62.4	0.20	0.15

자료원 : KOSIS

충남의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보면 인구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151.6만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40년에는 12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15~2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충남의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 천명)

년도	생산가능인구 (15~64세)	생산가능인구 (15~24세)	생산가능인구 (25~49세)	생산가능인구 (50~64세)
1990	1,350	428	625	298
1995	1,223	328	599	296
2000	1,278	299	688	291
2005	1,293	272	726	294
2010	1,424	290	777	357
2015	1,502	282	779	441
2020	1,516	241	764	511
2025	1,477	208	727	542
2030	1,416	203	676	536
2035	1,348	205	618	525
2040	1,271	204	580	488

자료 : KOSIS 전망치

## 2) 산업구조 분석

### (1) 산업 일반현황

2013년 현재 전국 사업체수는 3,676,876개, 충남은 145,998개로 3.97%, 전국 종사자수는 19,173,474명, 충남은 777,843명으로 약 4.06를 점유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 전국 평균비중(4.06%)보다 큰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8.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05%), 제조업(6.77%), 광업(6.0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52%)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비중에 못미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4.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05%), 교육 서비스업(3.9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4%), 건설업(3.45%), 도매 및 소매업(3.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14%), 운수업(3.02%), 금융 및 보험업(2.77%), 부동산업 및 임대업(2.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5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국대비 충남 사업체현황(2013)

산업별	전국		충남		종사자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비중	충남내비중
전산업	3,676,876	19,173,474	145,998	777,843	4.06	10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708	34,527	254	2,799	8.11	0.36
광업	1,883	15,872	116	965	6.08	0.12
제조업	370,616	3,802,218	13,452	257,231	6.77	33.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68	68,297	105	4,815	7.05	0.6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965	77,910	396	4,622	5.93	0.59
건설업	117,153	1,040,207	5,357	35,866	3.45	4.61
도매 및 소매업	960,388	2,879,955	37,903	94,067	3.27	12.09
운수업	371,639	1,014,030	12,199	30,656	3.02	3.94
숙박 및 음식점업	686,225	1,991,476	31,562	80,812	4.06	10.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541	516,208	670	6,262	1.21	0.81
금융 및 보험업	41,508	700,421	1,628	19,413	2.77	2.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630	466,719	4,523	12,756	2.73	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7,722	861,716	2,311	13,596	1.58	1.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447	943,283	1,797	23,870	2.53	3.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069	644,981	766	29,151	4.52	3.75
교육 서비스업	173,485	1,492,354	6,177	59,528	3.99	7.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5,703	1,325,849	5,302	52,196	3.94	6.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973	360,621	3,901	11,323	3.14	1.4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8,553	936,830	17,579	37,915	4.05	4.87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내부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33.07%), 도매 및 소매업(12.09%), 숙박 및 음식점업(10.39%), 교육 서비스업(7.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4.87%), 건설업(4.61%), 운수업(3.9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07%), 금융 및 보험업(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5%), 부동산업 및 임대업(1.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4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8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6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59%), 농업, 임업 및 어업(0.36%), 광업(0.1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충남은 제조업이 전국과 대비하거나 충남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산업분석

### ① 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 분석

2013년도 산업체규모계수(BQ<sup>3</sup>)로 산업별 전국대비 상대적 산업체규모를 파악한 결과, 제조업(1.8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1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04), 교육 서비스업(1.12) 등이 대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전산업의 산업체규모는 증가(0.03p)하였으며, 산업체규모가 확대된 업종은 제조업(0.26p), 광업(0.11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0.11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08p),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04p), 부동산업 및 임대업(0.04p), 도매 및 소매업(0.0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03p) 순이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원래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규모가 축소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0.01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01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02p), 운수업(-0.03p),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0.04p), 교육 서비스업(-0.05p), 건설업(-0.06p), 농업, 임업 및 어업(-0.12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13p),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19p) 순으로 나타났다.

---


$$3) BQ_{ij} = \frac{E_{ij}/C_{ij}}{E_i/C_i}$$

〈표 3-6〉 충남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

산업별	BQ			IG
	2006	2013	GAP	'06~'13
전산업	0.99	1.02	0.03	0.14
농업, 임업 및 어업	0.98	0.86	-0.12	-2.84
광업	0.88	0.99	0.11	0.41
제조업	1.60	1.86	0.26	1.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1	1.12	-0.19	-0.8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	1.04	0.04	0.44
건설업	0.81	0.75	-0.06	-0.05
도매 및 소매업	0.80	0.83	0.03	0.08
운수업	0.96	0.92	-0.03	0.21
숙박 및 음식점업	0.89	0.88	-0.01	-0.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66	0.64	-0.02	-0.28
금융 및 보험업	0.71	0.71	0.00	-0.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76	0.80	0.04	0.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3	0.60	-0.13	-0.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55	0.65	0.11	0.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63	0.71	0.08	-0.02
교육 서비스업	1.17	1.12	-0.05	-0.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94	0.93	-0.01	0.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7	0.84	-0.04	-0.20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88	0.92	0.03	0.05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의 산업성장률(IG<sup>4)</sup>)을 통해 전국대비 충남의 산업비중의 증감을 분석해본 결과, 전산업 평균 0.14% 증가하였고, 산업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1.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0.6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44%), 광업(0.41%), 부동산업 및 임대업(0.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21%), 운수업(0.21%), 도매 및 소매업(0.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0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남의 산업비중이 감소한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02%), 건설업(-0.05%), 숙박 및 음식점업(-0.06%), 금융 및 보험업(-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28%), 교육 서비스업(-0.3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85%), 농업, 임업 및 어업(-2.84%) 순으로 나타났다.

4)  $IG_{ij} = \left[ \frac{X_{ijt}}{X_{it}} - \frac{X_{ij0}}{X_{i0}} \right] \times 100$

## ② 산업집적 및 산업구조변화속도

2013년 현재 종사자기준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sup>5)</sup>)를 이용하여 충남산업의 지역집적(특화)도를 측정한 결과, 특화된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74), 제조업(1.67), 광업(1.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11), 숙박 및 음식점업(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 순으로 집적되어 있었으며, 이중에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조업,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특화도가 2006년에서 비해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산업집적 및 산업구조변화율(종사자수 기준)

산업별	LQ			CIS
	2006	2013	GAP	'06-'13
전산업				4.41
농업, 임업 및 어업	2.79	2.00	-0.80	-28.76
광업	1.45	1.50	0.05	6.36
제조업	1.44	1.67	0.23	22.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2	1.74	-0.28	-10.8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0	1.46	0.06	10.90
건설업	0.89	0.85	-0.04	-1.93
도매 및 소매업	0.81	0.81	-0.01	2.96
운수업	0.72	0.75	0.03	8.75
숙박 및 음식점업	1.05	1.00	-0.05	-1.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8	0.30	-0.08	-23.72
금융 및 보험업	0.73	0.68	-0.05	-3.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0.62	0.67	0.05	13.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2	0.39	-0.14	-42.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49	0.62	0.14	55.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6	1.11	-0.05	-0.65
교육 서비스업	1.12	0.98	-0.13	-10.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95	0.97	0.02	10.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5	0.77	-0.08	-7.58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2	1.00	-0.02	1.42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3년 현재 지역 특화도가 낮은 업종으로는 교육 서비스업(0.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97), 건설업(0.85), 도매 및 소매업(0.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0.77), 운수

$$5) LQ_{ij} = \frac{X_{ij}/X_j}{X_i/X}$$

업(0.75), 금융 및 보험업(0.68), 부동산업 및 임대업(0.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0.6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3) 순이었으며, 이중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화도가 2006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종은 감소하였다.

‘산업구조변화율(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 CIS<sup>6)</sup>)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충남은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전국에 비해 전산업적으로 4.41% 빠른 산업구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비해 빠른 산업구조 변화가 있었던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5.53%), 제조업(22.73%), 부동산업 및 임대업(13.3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05%), 운수업(8.75%), 광업(6.36%), 도매 및 소매업(2.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에 비해 산업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65%), 숙박 및 음식점업(-1.87%), 건설업(-1.93%), 금융 및 보험업(-3.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58%), 교육 서비스업(-10.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0.8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3.72%), 농업, 임업 및 어업(-28.7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2.66%) 순으로 나타났다.

### (3) 산업효율성 분석

#### ① 부가가치율<sup>7)</sup>

광제조업통계(10인이상)로 본 2013년 제조업의 산업효율성 관련지표 분석결과, 2013년 현재 충남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전국 평균보다 0.90p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8.50p), 기타 제품 제조업(16.20p),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14.80p),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60p), 전기장비 제조업(8.00p), 인쇄 및 기

---


$$6) \text{ CIS}_{ji} = \left[ \frac{X_{jit}}{X_{ji0}} - \frac{X_{it}}{X_{i0}} \right] \times 100$$

$$7) \frac{\text{부가가치}}{\text{생산액}} \times 100$$

록매체 복제업(7.60p),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5.20p),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4.90p),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4.50p),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10p),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10p),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90p),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0.90p)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20p), 식료품 제조업(-1.30p),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2.10p),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3.20p),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6.10p), 1차금속제조업(-6.30p),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7.70p), 가구 제조업(-7.70p),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0.70p), 음료 제조업(-16.50p)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부가가치율(2013)

(단위 : %)

산업별	2000			2013		
	전국	충남	GAP	전국	충남	GAP
제조업(10~33)	38.4	35.3	-3.10	32.0	32.9	0.90
식료품 제조업	40.3	41.1	0.80	32.4	31.1	-1.30
음료 제조업	60.9	51.0	-9.90	55.5	39.0	-16.50
담배 제조업	64.2			59.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2.4	36.5	-5.90	33.8	23.1	-10.7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4.7	48.8	4.10	45.4	60.2	14.8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7.1	39.0	1.90	35.7	40.2	4.5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9.9	44.7	4.80	31.7	36.9	5.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2	34.0	-2.20	32.9	30.8	-2.1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0	54.8	4.80	47.5	55.1	7.6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8	7.8	-6.00	13.6	14.5	0.9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4.7	31.7	-3.00	26.8	23.6	-3.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9.2	61.6	2.40	56.7	58.6	1.9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1.1	41.2	0.10	34.4	36.5	2.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2	47.3	-2.90	44.2	62.7	18.50
1차 금속 제조업	31.4	24.1	-7.30	19.2	12.9	-6.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1.7	41.0	-0.70	39.8	32.1	-7.7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2.1	49.8	7.70	45.4	50.3	4.9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5.4	47.7	2.30	43.8	37.7	-6.10
전기장비 제조업	37.8	35.1	-2.70	30.4	38.4	8.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8	36.8	-4.00	35.5	34.3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7.9	40.4	2.50	30.1	33.2	3.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3.0	-39.1	-82.10	27.9	41.5	13.60
가구 제조업	41.4	23.1	-18.30	29.3	21.6	-7.70
기타 제품 제조업	44.6	54.7	10.10	42.8	59.0	16.20

자료 : KOSIS 광제조업조사

## ②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 및 고용계수 분석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P)<sup>8)</sup>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충남의 제조업(1.5)은 전국의 노동생산성보다 커서 전국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으며, 전국의 노동생산성보다 커서 전국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6), 가구 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1.4), 전기장비 제조업(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3), 1차금속제조업(1.3), 식료품 제조업(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1)은 전국 수준과 동일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으며, 전국의 노동생산성보다 작아서 전국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업종은 음료 제조업(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0.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0.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0.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0.7), 기타 제품 제조업(0.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0.4)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충남의 제조업에 대한 고용계수<sup>9)</sup>는 1.27명으로 전국의 1.89명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고용계수가 높은 업종의 순서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9.57명), 기타 제품 제조업(8.44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7.27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4.98명), 가죽, 가방 및신 발제조업(4.4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4.09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27명),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2.79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76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1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48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12명), 가구 제조업(2.08명), 식료품 제조업(2.07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1.95명), 전기장비 제조업(1.76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64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58명), 음료 제조업(1.49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06명), 1차금속제조업(0.73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0.5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0.07명) 순으로 나타났다.

8)  $\frac{Q_{ij}/L_{ij}}{Q_i/L_i}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노동생산성}}{\text{전국의 } i\text{산업 노동생산성}}$

9) 산출액 10억당 피용자수

〈표 3-9〉 RLP 및 고용계수

산업별	RLP			고용계수(10억당)			
				2000		2013	
	2000	2013	GAP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제조업(10~33)	1.3	1.5	0.1	4.37	3.24	1.89	1.27
식료품 제조업	1.3	1.2	0.0	5.06	4.07	2.53	2.07
음료 제조업	0.4	0.9	0.5	2.71	7.87	1.31	1.49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1.6	0.3	8.50	6.67	4.49	2.7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8	0.4	-0.4	14.10	16.98	3.99	9.5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	0.8	-0.3	8.83	7.94	3.78	4.4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8	0.8	-1.1	7.42	4.19	3.80	4.9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1.3	-0.1	3.83	2.75	2.56	1.9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0.9	0.0	10.63	11.17	6.82	7.2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5	1.0	0.5	0.29	0.58	0.07	0.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	1.5	0.1	2.07	1.50	0.74	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	1.3	-0.1	4.95	3.55	2.11	1.5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1.4	0.2	7.05	5.96	3.36	2.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7	1.2	0.5	4.85	6.96	2.55	2.12
1차 금속 제조업	1.2	1.3	0.1	2.30	1.88	0.97	0.7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3	1.4	0.1	7.72	5.84	3.65	2.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9	1.5	0.6	3.11	3.36	1.59	1.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1.0	-0.2	8.36	6.71	4.17	4.09
전기장비 제조업	1.1	1.4	0.3	5.67	4.95	2.54	1.7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1.1	-0.3	6.44	4.49	3.17	2.7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1.1	-0.3	3.76	2.63	1.78	1.6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4	0.7	0.3	4.96	13.95	2.16	3.27
가구 제조업	2.1	1.6	-0.5	7.77	3.65	3.36	2.08
기타 제품 제조업	0.7	0.7	0.0	10.74	15.75	5.76	8.44

자료 : KOSIS 광제조업조사

#### (4) 지역경제 성장효과 분석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종사자 기준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sup>10)</sup>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요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경쟁효과(RCC)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정산업의 경쟁력이 작용해 특정산업의 성장속도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역 경쟁요소를 지역 고유의 경쟁력으로 보고, 해당산업 종사자수중 지역경쟁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서 지역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4.6%), 제조업(16.6%), 부동산업 및 임대업(1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7.5%), 운수업(6.9%), 광업(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3%), 도매 및 소매업(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2%) 순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 변이할당분석(2000~2013)

산업별	NGC	IMC	RCC	TCE	RCC/ 종사자수(%)
농업, 임업 및 어업	825	-454	-980	-609	-35.0
광업	247	-364	65	-53	6.7
제조업	45,624	-19,632	42,821	68,814	16.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92	-1,230	-581	-519	-12.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67	344	345	1,456	7.5
건설업	7,165	-316	-570	6,278	-1.6
도매 및 소매업	19,145	-6,481	2,342	15,005	2.5
운수업	5,880	-1,631	2,125	6,374	6.9
숙박 및 음식점업	16,694	-3,536	-1,286	11,872	-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89	82	-1,458	113	-23.3
금융 및 보험업	4,314	-2,010	-707	1,597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7	-1,317	1,369	2,528	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36	5,729	-4,115	3,950	-3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60	4,866	5,871	13,297	2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66	-1,293	-160	4,513	-0.5
교육 서비스업	13,162	-2,170	-5,820	5,172	-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648	15,333	2,758	24,740	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0	5	-736	1,619	-6.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496	-975	439	6,959	1.2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10)  $RS_{ij} = TS_{ij} + PS_{ij} + DS_{ij} = E_{ijt} - E_{ij0}$



그러나 종사자수중 지역경쟁력 비중이 음(-)으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5%), 건설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6%), 금융 및 보험업(-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6.5%), 교육 서비스업(-9.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0.3%), 농업, 임업 및 어업(-3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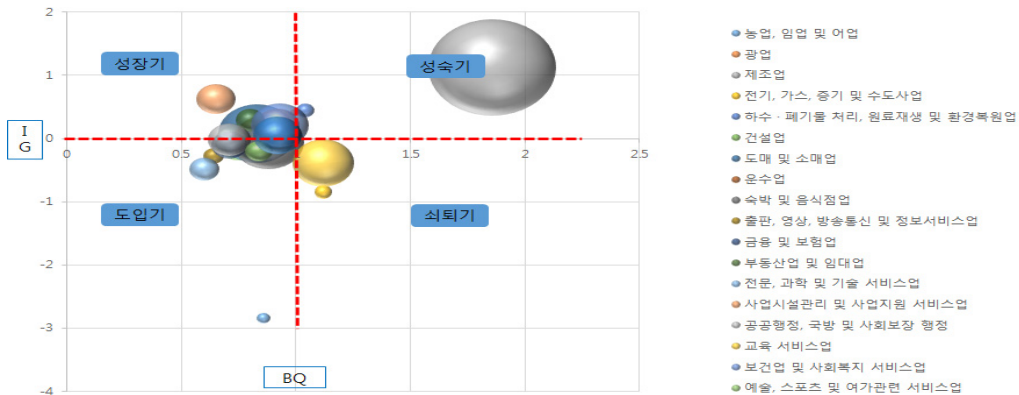
## (5) 산업 유형화

BQ는 X축에 IG를 Y축에 결합시킴으로써 산업(또는 기업)의 발전단계에 대한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면, <표 3-11>과 같이 산업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산업의 발전경로를 바탕으로 사업체 규모계수(BQ)와 산업성장률(IG)간의 위치에 따라 산업발전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11> 산업발전 단계

발전단계	지표현황	내 용
성숙기(I)	$BQ \geq 1$ & $IG(+)$	산업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높은 산업
성장기(II)	$BQ < 1$ & $IG(+)$	산업규모는 아직 작지만 성장률이 높은 산업
도입기(III)	$BQ < 1$ & $IG(-)$	산업규모도 작고 아직 성장률도 평균에 못미치는 산업
쇠퇴기(IV)	$BQ \geq 1$ & $IG(-)$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산업

\* 자료 : 김대중, 2014



\*주 : 버블크기는 LQ

<그림 3-1> 충남 산업별 포지셔닝

### 3) 지역경제 현황분석

#### (1) 연구개발 현황

전국 시도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충남의 연구개발비 투자액(2,628,163백만원)은 경기(27,309,456백만원)와 서울(10,702,663백만원)의 수도권과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대전(5,940,087백만원)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많고 충남의 연구개발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14.16%)도 경기도(17.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비 투자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전국 연구개발비 분포

(단위 : 백만원)

주체별	연구개발비 지역별 분포		CAGR(%)
	2000	2013	
전국	13,848,501	59,300,949	11.84
경기	3,402,096	27,309,456	17.38
서울	4,534,141	10,702,663	6.83
대전	1,978,851	5,940,087	8.82
충남	469,760	2,628,163	14.16
경북	616,961	2,135,540	10.02
인천	505,384	2,132,828	11.71
경남	827,063	2,074,905	7.33
충북	218,567	1,059,810	12.91
부산	239,580	965,470	11.32
전북	135,482	875,085	15.43
대구	190,889	821,246	11.88
울산		740,508	
전남	118,421	645,637	13.94
광주	200,443	593,698	8.71
강원	90,882	356,524	11.09
세종		188,074	
제주	25,571	131,256	13.4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2) 지역 내 투자

지역소득통계의 지출계정 중 '총자본형성' 항목을 통해 지역 내 투자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2013년도의 충남지역의 투자액(40,483,132백만원)은 경기(94,789,409백만원)와 서울(56,540,542백만원)의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 내 투자액이 많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8.24%)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내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지역 투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정구역(시도)별	당해년 가격		CAGR(%)
	2000	2013	
전국	212,230,783	416,014,792	5.31
경기도	52,163,118	94,789,409	4.70
서울특별시	36,087,735	56,540,542	3.51
충청남도	14,457,621	40,483,132	8.24
경상남도	13,217,385	30,056,609	6.52
경상북도	19,565,985	29,185,791	3.12
전라남도	10,320,754	24,381,700	6.84
인천광역시	9,499,133	21,912,797	6.64
부산광역시	10,760,701	20,720,773	5.17
울산광역시	7,426,390	19,133,578	7.55
충청북도	7,044,511	16,715,626	6.87
전라북도	6,807,246	14,507,336	5.99
강원도	6,657,304	13,176,136	5.39
대구광역시	6,339,219	11,894,260	4.96
대전광역시	5,605,359	9,922,289	4.49
광주광역시	4,436,268	7,891,922	4.53
제주특별자치도	1,842,054	4,702,892	7.48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주 : 1) 투자액은 지역소득통계의 지출계정 중 '총자본형성' 항목

### (3) 수출입 분석

전국과 비교한 2014년도 충남의 수출액 규모는 경기, 울산에 이어 3위 수준이며 수입액은 서울, 경기, 울산에 이어 4위로 충남의 무역특화도(0.33)는 경북(0.52), 광주(0.52), 충북(0.39), 대전(0.360)에 이어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충남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출금액 연평균증가율은 10.2%, 수입금액 연평균증가율은 9.2%, 무역수지는 11.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교역을 통한 무역수지 실적이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전국 수출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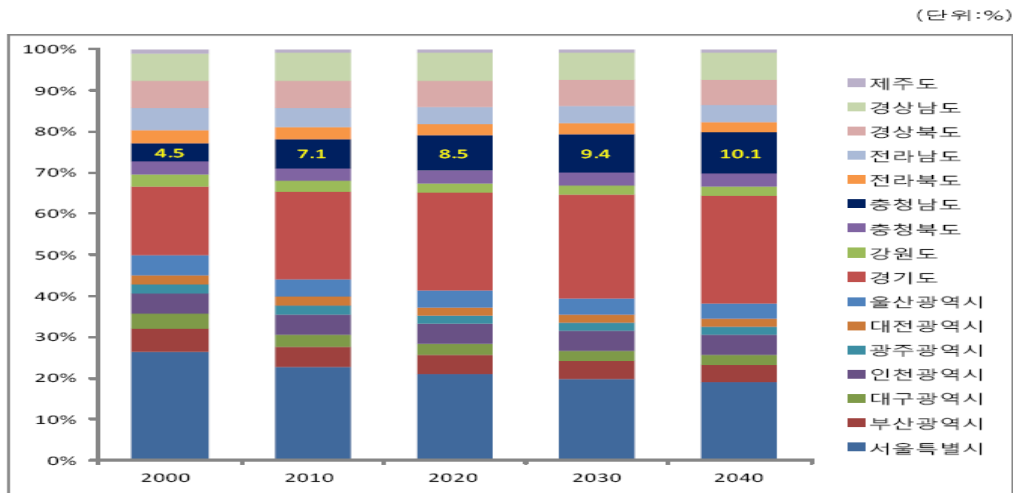
(단위 : 천불, %)

순번	지역명	2000년		2014년			CAGR(%)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특화지수(TSI)	수출	수입
	총계	172,267,510	160,481,018	572,664,607	525,514,506	0.04	8.96	8.84
1	경북	15,652,528	12,161,873	51,476,345	16,057,397	0.52	8.88	2.00
2	광주	3,182,605	1,843,946	16,258,384	5,167,491	0.52	12.36	7.64
3	충북	4,747,820	3,313,739	14,195,887	6,177,078	0.39	8.14	4.55
4	대구	2,849,349	1,395,335	7,807,123	3,681,189	0.36	7.47	7.18
5	충남	16,990,792	9,978,081	65,112,462	33,104,446	0.33	10.07	8.94
6	경남	16,651,312	9,499,632	51,142,433	26,812,086	0.31	8.35	7.69
7	전북	2,881,057	1,501,319	8,556,406	4,552,404	0.31	8.09	8.25
8	대전	837,138	1,258,996	4,731,529	3,557,912	0.14	13.17	7.70
9	울산	19,972,128	14,268,301	92,400,410	79,739,272	0.07	11.56	13.08
10	경기	38,041,067	35,640,408	111,641,042	104,821,449	0.03	7.99	8.01
11	부산	4,835,451	3,985,410	14,702,010	14,894,016	-0.01	8.27	9.87
12	전남	5,804,947	10,781,044	39,111,996	41,786,142	-0.03	14.60	10.16
13	세종			1,020,318	1,150,015	-0.06		
14	인천	7,526,894	10,244,895	30,002,762	40,351,870	-0.15	10.38	10.29
15	강원	337,915	381,262	2,069,748	2,863,198	-0.16	13.82	15.49
16	서울	31,913,418	44,163,533	62,329,311	140,472,535	-0.39	4.90	8.62
17	제주	39,827	52,520	106,415	325,533	-0.51	7.27	13.92
18	기타	3,261	10,725	27	472	-0.89	-29.00	-2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 지역소득(GRDP) 분석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7.1%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1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전국대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전국(6.4%)에 비하여 2.7%p 높은 9.1%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그림 3-2〉 지역별 우리나라 GRDP 비율

충남지역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15.9%),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5.2%)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활동 부분에서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대비 비율이나 생산기여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및 광업의 성장추세가 매우 낮고, 3차 산업 부분의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전국대비 비율도 낮고 지역내총생산 기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5〉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단위:당해년도가격(백만원))

경제활동별	2000		2013		CAGR(%)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638,029,536	31,895,010	1,430,254,931	99,154,337	6.4	9.1
순생산물세	64,963,390	3,241,251	126,045,256	10,058,857	5.2	9.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73,066,146	28,653,759	1,304,209,675	89,095,480	6.5	9.1
농림어업	25,711,958	3,468,975	30,521,185	3,988,264	1.3	1.1
광업	1,746,735	94,717	2,602,517	156,280	3.1	3.9
제조업	165,483,624	11,368,224	404,610,512	48,503,967	7.1	11.8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0,072,020	1,011,277	17,234,965	1,816,000	4.2	4.6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3,082,631	412,661	20,940,596	482,746	3.7	1.2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6,934,983	488,934	10,859,169	664,636	3.5	2.4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25,324,425	2,587,345	63,242,375	8,273,918	7.3	9.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28,574,263	1,452,941	72,904,980	9,178,409	7.5	15.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43,489,079	2,877,030	115,442,002	19,605,399	7.8	15.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8,006,223	2,538,036	103,986,425	8,482,859	8.0	9.7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3,259,098	1,601,893	22,793,709	2,972,245	4.3	4.9
건설업	33,954,901	1,899,165	64,375,608	6,042,299	5.0	9.3
도매및소매업	54,792,734	1,026,801	118,202,904	2,695,375	6.1	7.7
운수업	25,863,423	1,051,509	47,032,365	2,108,776	4.7	5.5
숙박및음식점업	17,100,129	579,391	33,773,129	1,325,405	5.4	6.6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125,194	447,345	50,572,873	555,747	5.5	1.7
금융및보험업	32,249,338	668,962	72,611,814	1,928,318	6.4	8.5
부동산업및임대업	53,288,051	1,574,996	103,512,719	3,264,808	5.2	5.8
사업서비스업	31,470,881	685,453	94,864,819	2,776,516	8.9	11.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35,021,259	1,873,212	93,447,916	5,558,927	7.8	8.7
교육서비스업	27,150,216	1,359,110	71,569,867	3,663,316	7.7	7.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273,239	500,129	52,934,265	1,997,046	10.6	11.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6,575,366	453,877	40,783,473	1,558,191	7.2	1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013년도 충남의 1인당 GRDP는 45,629천원으로 울산(60,556천원)에 이어 2위이지만 증가율은 7.9%로 전국 1위로 분석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남 시군별 1인당 GRDP는 산업이 발달한 충남 서북부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서부지역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3-16〉 전국 1인당 GRDP

단위:천원

행정구역(시도)별	2000	2013	CAGR(%)
전국	13,573	28,480	5.87
울산광역시	29,984	60,556	5.56
충청남도	16,972	45,629	7.90
전라남도	15,066	35,368	6.78
경상북도	15,431	33,750	6.20
서울특별시	15,849	32,097	5.58
경상남도	14,133	30,606	6.12
충청북도	13,613	30,406	6.38
경기도	13,106	25,844	5.36
전라북도	10,671	23,644	6.31
강원도	11,510	23,579	5.67
제주특별자치도	10,650	23,172	6.16
인천광역시	11,607	22,875	5.36
부산광역시	9,554	20,532	6.06
대전광역시	10,304	20,424	5.40
광주광역시	9,558	19,660	5.70
대구광역시	8,953	18,155	5.59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5) 재정자립도 분석

지자체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충남지역은 30.4%로 전국평균(45.1%)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입징수기반이 전국적인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합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비율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전국 재정자립도

(단위 : %)

시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00	2015	2015
서울특별시	94.8	80.3	81.4
울산광역시	74.6	63.6	71.1
경기도	69.3	60.7	70.0
인천광역시	77.2	59.1	68.4
부산광역시	78.3	51.0	65.1
대전광역시	72.3	49.3	66.2
대구광역시	75.0	46.9	65.7
전국	59.4	45.1	68.0
광주광역시	62.2	44.2	62.0
세종특별자치시	-	44.0	67.2
경상남도	35.8	37.4	66.1
충청남도	26.8	30.4	65.5
제주특별자치도	31.2	30.3	63.4
충청북도	30.3	28.1	65.6
경상북도	29.2	24.3	65.4
전라북도	22.8	22.1	61.1
강원도	30.0	21.5	64.6
전라남도	15.9	17.8	60.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013년도 충남지역의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 서북부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이 양호한 시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인 재정자주도 비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얼마나 되는가의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복지관련 매칭펀드의 비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3-18〉 충남 재정자립도(2013)

(단위 : %)

시군별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재정력지수) (%)
합계	26.2	65.4	0.27
아산시	48.5	67.3	0.72
천안시	46.6	71.0	0.65
당진시	30.6	65.8	0.41
서산시	27.8	69.2	0.30
계룡시	22.1	75.7	0.23
보령시	19.7	64.8	0.18
태안군	18.5	70.4	0.24
홍성군	18.1	65.5	0.17
금산군	18.0	66.5	0.17
공주시	17.5	65.4	0.16
논산시	16.1	60.5	0.20
예산군	13.8	59.8	0.19
청양군	13.0	66.0	0.09
서천군	12.2	56.5	0.13
부여군	11.3	55.5	0.1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3.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산업경제 분야 지표들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충남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력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지역 간 생산의 격차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현재 충남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발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둘째,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기업지원이나 지식서비스분야의 산업경제구조는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산업경제성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충남 지역의 무역잠재력은 현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시군별 무역 특화지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별 교역에서 일부 국가의 의존도가 크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 경기상황에 따라 안정성이 위협받는 즉,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특화된 지원정책이나 안정적인 교역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충남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공통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충남 전체적으로 GRDP는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의 증가는 일부 산업이 발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내 산출대비 지역 내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위한 지방차원의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하락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경제기반이 취약 지역에서의 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 지원활동의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제4장 중간지원조직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주도로 설립된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하여 서면조사와 설문 및 면접조사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이들 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체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체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대 일 면접조사, 간담회, 전화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충남지역 소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의 산업경제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주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업지원기관을 제외한 순수 민간주도로 설립된 법인격 지위의 산업경제단체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단, 법인격 지위를 획득한 민간기반의 산업경제관련 단체이기는 하나, 현재 설립 1년 미만으로 활동기반 조성기에 있거나 또는 조직 역량상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주요 사업내용이 노사관계 등을 중심으로 두고 활동하는 단체, 전국조합 및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를 회원 대상으로 한정된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단체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 등 총 9 곳이다. 이들 단체 중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서산 상공회의소 등 3곳의 상공회의소의 경우 각각 충남 전 지역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경제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복수의 기초지역을 사업지역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단체로 포함하였다.

〈표 4-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
조사방법	- 자료협조, 설문조사, 집단 및 일대일 면접조사, 간담회 등 병행조사
조사기간	2015년 7월1일-2015년 7월30일

이번 조사를 위하여 우선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정관, 조직도 및 임원현황, 주요기능, 추진사업내용, 재정현황, 회원사 현황 등 각종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단체들의 조직 현황 및 활동실태, 애로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통하여 실시된 설문 및 면접조사는 크게 조직내부역량 평가, 역할수행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자체 사업의 종류, 관계 기관별 교류현황, 외부기관의 지원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요구되는 외부지원 사항,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중 두 개의 문항(7번, 9번)은 서술형으로 작성되었다. 문항 중 1,3,5,6번 문항은 다시 세부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으며 문항 당 총 7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서술형을 제외한 문항들은 각 문항에 따라 빈도별(1-7)로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별 결과는 각 해당단체가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평가·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점수척도를 적용한 1,3,5,6번 문항의 경우 질문별로 획득한 점수대를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이들 문항의 평균 기준 점수는 4점으로 설정하였다. 점수척도를 적용한 각 문항들은 점수 구간에 따라 1-3점은 '약함' 또는 '낮음' 수준으로, 4,5점은 '보통' 수준으로, 6-7점은 '강함'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유치한 위탁사업의 종류와 내용, 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6번 문항 '지원기관의 지원현황과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각 해당단체들이 사업을 위탁한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표기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기관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업별 만족도의 경우는 중앙정부(공공기관 포함)단위, 지방자치단체단위, 기타단체단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표 4-2〉 면담 설문조사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직 내부 역량	(1)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자기 전망과의 밀접성 (2)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에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3)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4)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 (5) 사업 기술 능력(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6)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파트너십) (7) 조직 구조(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 (8)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9)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
역할 수행 방법	(1)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2) 외부 역량으로 의뢰하여 모두 제공 (3) 자체 역량 중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4)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5)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제공 서비스	(1) 정보수집과 제공 (2) 각종 시설 및 장비 중개 (3) 일자리 알선 (4)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홍보 (5)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6) 회원사의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7)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8)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문 및 컨설팅 (9) 정부정책 참여 (10)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11)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12)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13) 기술중개기능 (14) 회원사 또는 기관단체간의 협력조정기능
자체 사업 가능 분야	위 제공서비스 세부항목 중 선택
관계기관별 교류 현황	(1) 중앙정부 부처 (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3) 대학 및 연구소 (4) 지방의회 (5) 민간기업 (6) 비영리단체(NGO, 종교기관 포함) (7) 관련 공공기관 (8) 관련 단체 (9)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관계 기관별 지원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정부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
애로사항	의견 서술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	(1) 사무실, 교육 공간 등 인프라 지원 (2) 위탁 계약의 안정성 (3) 자체 사업비 지원 (4)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6) 우수 전문인력 제공 (7)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 (8) 기타
중간조직 활성화 방안	의견 서술

또한 ‘운영상 애로사항’과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서술형 문항인 7,9번의 경우 해당단체들이 제시한 답변들을 분석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단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해당 단체들이 과연 설립 목적에 따른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또한 조직역량은 어떠한지, 어떤 역할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산학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단체들의 핵심 관계자와 추가적인 간담회와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간 기반의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한 각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된 각 해당단체들의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사례조직 현황 분석

### 1) 단체의 성격

일반현황 내용을 분석한 결과,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들 해당 단체들은 모두 회원 기반의 비영리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별, 산업별(업종)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전 산업(업종)을 망라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범산업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단체들은 단체에 따라 지역기반의 독립법인 형태 조직과 전국조직의 지역지부형태 조직으로 나뉘어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9곳의 해당 단체 중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충남벤처협회,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5곳은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충남세종지부 등 4곳은 전국조직의 지역지부 형태로 각각 설립되었다.

지역지부형태로 설립된 4곳의 단체들은 지난 2012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 충남지회에서 분리 독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를 제외하고, 광역단위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지역을 사업지역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대전광역시내 단체사무국을 두고

대전지역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지역만을 사업지역 범위로 하고 있는 단체는 9곳 중 6곳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단체 중 가장 설립 시기가 빠른 단체는 1966년 설립된 충남북부상공회의소로, 다른 독립법인형태 또는 지역지부형태의 단체들이 설립되기 전까지 수십 년 간 사실상 충남지역의 상공업을 대변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1993년), 서산상공회의소(1995년), 충남벤처협회(2001년), 당진상공회의소(2005년) 순으로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 중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 등 2곳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대전·세종·충남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충남지부 등 2곳은 2010년 이후 설립된 단체들이다.

## 2) 주요 기능과 사업내용

해당 단체들이 명시하고 있는 주요 기능과 이에 따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정관상 회원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요 기능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재정 및 인력상태 등 현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양과 규모, 서비스의 질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은 단체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뉘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의 경우 자체 재정을 활용한 자체사업의 비중에 비하여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당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시니어 인턴사업과 특허·인증·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지식센터 운영 사업, FTA 컨설팅 지원 사업, 성공·창업기업 간 멘토링 사업, 각종 교육사업, 지방벤처 공동채용·훈련 사업,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등이 있다. 자체사업의 경우 각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회원사 교육 및 포럼 운영, 경영상담 제공, 기업지원정보 제공 등이 있다. 해당단체 중에 사회적 경제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및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마을기업 설립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강화사업, 창업지원 사업 등 타 산업 경제관련 단체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재정현황

해당단체들의 재정 규모와 재정구성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단체에 따라 연간 최소 1억1000만원에서 최대 79억여 원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예산이 2억 원 이하인 단체가 3곳, 10억-15억 원 4곳, 15억 원-20억 원 1곳, 20억 원 이상이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 중에 10억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단체들이다. 실제로 연간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단체들의 위탁사업비등에 대한 의존도는 연간 예산대비 67%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 상공회의소법상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상공인을 의무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정단체인 상공회의소가 타 단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간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단체들과는 다른 회비 부과기준(회원기업 당 매출세액의 1000분의 1-3%)을 적용하고 있고, 회원 수와 위탁사업 량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당진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등 3곳의 상공회의소들은 사업지역 범위에 따른 회원 수 규모와 회비 징수율, 위탁사업 량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단체는 15억 원-20억 원, 가장 큰 단체는 최대 7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이 2억 원 미만인 일부 단체의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연간 재정의 70% 이상을 회원 회비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해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소규모 단체의 경우 상시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등 경상비 지출을 고려할 때 단체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 단체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들의 연간 재정구성 비율을 분석해보면, 연간 예산 대비 회비수입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8%로, 단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회비수입이 10% 미만인 곳이 2곳, 10%-20%가 2곳, 20%-40% 2곳, 40% 이상이 3곳이며 이들 단체들의 연 예산대비 회비수입 비율은 평균 34.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대비 회비 비율이 높은 단체일수록 중앙정부 등의 위탁사업이나 지원비중이 적고, 따라서 연간 예산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예산 비중을 연간 예산과 대비



해보면, 단체에 따라 최소 22%-최대 9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예산대비 위탁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평균 5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42.96%, 지자체가 15.4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체수익과 후원금 수입등 기타 수입은 연간 예산대비 7%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력현황

해당 단체들의 상시인력 수는 단체에 따라 최소 1명에서 많게는 3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별로 보면 상시고용 인력이 1-3명 4곳, 5-10명 3곳, 20-40명 2곳으로, 년 예산 대비 위탁사업비 등의 비중이 높은 단체일수록 상시인력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5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연간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고, 예산 대비 위탁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2% 사이인 단체들인 것으로 나타나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상시고용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탁사업수행에 따라 고용한 상시 인력을 제외한 단체 순수 예산으로 고용된 상시 고용인력은 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체의 경우 1-2명 수준이며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공회의소만이 6-12명 사이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회원사현황

해당 단체들의 회원사 수를 보면, 100개 기업 이하가 3곳, 100-300개사 2곳, 300-500개사 1곳, 500-1000개 1곳, 1,000개 기업 이상이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 중에 천안, 아산, 예산, 홍성을 사업지역범위로 하고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당진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회원 기업의 총 수는 2710개사인데, 이 가운데 사업지역범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회원 기업 수가 1760개사로 대상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공회의소가 타 단체에 비하여 회원수사가 많은 것은 회비 납부 여부를 떠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연매출이 50억 원 이상인 상공인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기업인만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인협회충남지회와 (예비)사회적 기업을

회원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 등의 경우 단체 특성상 회원 기업 수가 가장 적은 단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요약 및 시사점

충남지역을 활동기반으로 하여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반의 산업경제관련 단체들은 모든 업종을 망라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 9곳의 해당단체 중 5곳은 지역기반의 독립법인 형태로, 또 다른 4곳은 전국조직의 지역지부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당단체들은 회원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단체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정과 인력 등 조직역량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양과 규모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체 재정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예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단체들의 연간 예산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은 평균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6곳의 연간 예산 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은 50%-92.5%로 나타났다. 이 중에 상공회의소법상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상공인을 의무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정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상대적으로 연간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단체들에 비하여 높은 회비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의무가입 대상 규정에 따른 회원 수 규모와 위탁사업 량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단체 여건 상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일부단체의 경우 연간 예산이 2억 원 이하로, 상시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을 고려할 때 사실상 회원사를 위한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인력 역시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단체일수록 상시 고용 인력이 많았는데,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상시고용 인력을 제외할 경우 단체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은 불과 1-2명 수준의 단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의 기반인 회원사수를 살펴보면 100개 기업 이하인 단체부터 많게는 1000개 기업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회원회비 징수율은 회원 기업수의 평균 20-30%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해당단체들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산업경제관련 단체들은 전 산업(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기반 주력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충남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단체들이 기능별, 산업별로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2000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8.4%(전국 1위), 2013년 현재 GRDP 전국 3위, 1인당 GRDP 전국 2위라는 성과를 달성한 충남지역경제의 규모로 볼 때 지역 산업경제관련 단체들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활동역량 등도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이 수도권규제정책과 환황해에 접한 국토중심,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출 중심 형 대기업이 대거 입지함으로써 이루어진 외생적 발전의 결과에 안주했던 지역 혁신 주체들의 인식 수준과 지역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충남지역의 경제발전 특징 상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산업경제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이 지역경제발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혁신 주체들의 이해도와 인식이 고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단체들의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중앙정부 등으로 부터의 위탁받은 사업의 비중이 60-9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 해당단체들이 회원사들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일률적이고 하향식으로 주어지는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순 대행하는 활동에 조직 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해당 단체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부여된 공통적인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기업지원정보 제공과 경영상담, 각종 교육,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기능의 활성화 등에 조직 내부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며 이는 회원 기업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특히, 해마다 주어지던 위탁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칫 단체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넷째, 해당 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재정에서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과 재정 대비 위탁사업 등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 자체 회비수입만으로는 최소한의 사무국 인력을 운용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있다는 단체들마저 존재한다는 점은 이들 단체들의 자립기반이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단체들의 연간 예산대비 회비수입 비율은 평균 34%이며, 이중 회비 수입이 20% 이하인 단체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체의 역량만으로 단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자립기반이 취약하게 되면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회원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체 기획 사업을 수립,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단체들의 존엄성과 자율성, 독립성, 자기 기획력, 지속가능성 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지역혁신주체로서, 지역산업의 견인차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연간 10억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5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연간 예산 대비 위탁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2%에 이른다는 점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상시고용 인력이 단체 보유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체 고유사업의 기획,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의 부족은 회원사의 만족도를 저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켜 지역산업경제 영역의 핵심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섯째, 따라서 해당 단체들이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과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고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3. 실태 면접조사 결과분석

#### 1)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조직 내부역량과 관련하여 9가지 문항의 자가 평가결과는 다음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결과는 평균 5점 이상으로, '대체로 강함'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점수를 보면,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5.89),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5.67), 조직 구조의 합리성 등(각종 규정, 의사

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5.56),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 자기 전망과의 밀접성(5.44),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 / 파트너십)(5.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과 관련한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사업 기술능력(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 공간, 시설, 기기 등),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문항	약함	보통	강함	평균
1-1 전담인력의 해당역할에 대한 공감대/자기 전망과의 밀접성	1	2	6	5.44
1-2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에 있어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0	6	3	5.11
1-3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0	3	6	5.89
1-4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	0	3	6	5.67
1-5 사업 기술 능력(사업목표수립 및 실행, 재정전략 및 재무 관리)	1	5	3	5.11
1-6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 / 파트너십)	1	3	5	5.22
1-7 조직 구조의 합리성 등 (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	1	2	6	5.56
1-8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1	5	3	5.11
1-9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	1	4	4	5.11

## 2)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

단체의 역할 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의 5가지 답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 문 문 항		
2. 귀 단체의 회원기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은?		
문항	빈도	%
①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1	11.1
②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모두 제공	0	0
③ 자체 역량 중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7	77.8
④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0	0
⑤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1	11.1

해당 단체 9곳 중 7곳은 '자체 역량 중심이면서 일부 외부 의뢰'(77.8%)를 통하여 단체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체 역량'으로 제공 1곳,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1곳이다.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제공'하거나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역량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단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공 서비스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14가지 문항의 자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제공 서비스

문항	적음	보통	많음	평균
3-1 정보수집과 제공	0	3	6	6.11
3-2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개	4	5	0	3.56
3-3 일자리 알선	1	5	3	4.78
3-4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	5	2	2	3.56
3-5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1	1	7	5.89
3-6 회원사의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2	5	2	4.67
3-7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1	5	3	4.89
3-8 경영(창업,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1	5	3	5.11
3-9 정부정책 참여	0	5	4	5.00
3-10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2	1	6	5.22
3-11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0	2	7	5.72
3-12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1	6	2	4.78
3-13 기술 중개기능	9	0	0	1.67
3-14 회원사 또는 기관·단체간의 협력조정기능	1	6	2	4.67

이상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는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 '보통' 또는 '대체로 많음'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개, 기술 중개, 해외시장 판로개척 홍보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적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정보수집 및 알

선(6.11),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5.89),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5.72),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5.22), 경영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제공(5.11)순으로 '대체로 많음'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정부정책 참여(5.0),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4.89), 일자리 알선(4.78) 등을 '보통'의 수준으로, 각종 시설 및 장비 중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홍보, 기술 중개기능은 '적음'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서비스 중 자체 사업만으로 가능한 분야

위 3번 문항에 제시한 14개의 서비스 중에 단체 자체 사업만으로 가능한 분야에 관련하여 조사한 사업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설 문 문 항														
4. 위 3번에 언급된 서비스 중 귀 단체의 자체 사업만으로 가능한 분야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빈도	6	0	4	0	7	4	3	2	3	6	7	3	0	1
%	13	0	8.7	0	15.2	8.7	6.5	4.3	6.5	13	15.2	6.5	0	2.2

자체 사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단체들은 관련 행사기획 및 진행(15.2%), 회원사 종사자 교육 및 훈련지원((15.2%),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촉진(13%), 정보수집 및 제공(13%)순으로 빈도가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알선(8.7%), 회원사 인증 지원 상담(8.7%), 회원사 운영관련 자문 활동(6.5%), 조사 연구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6.5%), 경영에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제공(4.3%), 회원사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 조정(2.2%)순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각종 시설 및 장비 중개, 해외시장 판로 지원 및 홍보, 기술 중개 기능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자체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5) 기관별 교류 현황

관계 기관별 교류 현황과 빈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9가지 문항의 자가 평가결과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관별 교류 현황 및 빈도 평가에서 해당단체들은 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는 '보통'수준으로, 3개 항목은 '적음'수준으로, 4개 항목은 '대체로 많음'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관련 공공기관(5.44),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자치단체(5.33), 관련 단체(5.33)순으로 '대체로 많음'수준으로, 그 다음으로 대학 및 연구소(4.56), 민간기업(4.44), 비영리단체(4.11)가 '보통'수준으로,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3.78), 중앙부처(3.56), 지방의회(3.44)는 '적음'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4-5〉 기관별 교류 현황

문항	적음	보통	많음	평균
5-1 중앙정부 부처	3	6	0	3.56
5-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1	3	5	5.33
5-3 대학 및 연구소	1	7	1	4.56
5-4 지방 의회	5	4	0	3.44
5-5 민간기업	3	4	2	4.44
5-6 비영리단체(NGO, 종교기관 포함)	3	5	1	4.11
5-7 관련 공공기관	0	5	4	5.44
5-8 관련 단체	1	3	5	5.33
5-9 컨설팅 관련 전문 기관	4	4	1	3.78

## 6) 외부기관의 지원 현황

외부기관의 지원현황과 만족도와 관련하여 해당단체들의 평가 결과는 <표 4-6>과 같다. 외부기관의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해당단체들 중에 7곳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행자부, 보건복지부, 충남도, 기초지자체 등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위탁사업을 유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기관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거의 모든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통’ 또는 ‘대체로 만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외부기관 지원 현황

기관 및 단체	지원 주체(기관명)	지원 내용	만족도
A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공유, 사업협력	6
	중소기업청	성공·창업기업 간 멘토링	5
		사무공간 임대	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4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4
	대전광역시	전통기업과 벤처기업 교류활성화	5
B 기관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4
	기재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4
	행자부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4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시책사업 (아카데미,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	5
	시군	사회적경제 교육 및 시범사업 (종사자교육, 마을만들기, 창업지원 등)	5
C 기관	출연기관/민간재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3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 판로지원	6
		충남사회적경제	
		충남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	4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조직 육성 및 강화사업	1
	충청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각종 연개사업 진행	7
D 기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각종연계사업진행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65스토어 운영지원사업	7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7
	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제 사업	6
	중소기업청	지방벤처 공동채용·훈련 사업	5
	고용노동부, 천안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천안시	혁신벤처기업 지원 사업	5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채용 박람회 사업	6
E 기관	-		6
F 기관	특허청, 충청남도	지식재산지원 · 컨설팅	2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5
		청년인턴사업	5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남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충청남도 · 천안시 · 아산시	충남경제포럼	6
G 기관	천안시청	여성기업인 활동보조금	6
	충남도청	사회단체보조금	
		기업활동보조금	
H 기관	-		
I 기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6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쉽	
	당진시	경제포럼	
		상공인한마음대회	
		기업애로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2건에서 많게는 7건에 이르는 위탁사업을 수행 중이며 위탁사업을 단 한건도 수행하지 않는 단체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대전·세종·충남연합회와 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서산상공회의소 등 3개 단체이다. 다양한 위탁사업 중에 4곳의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와 시니어 인턴제 사업의 경우 '만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사업 제공 기관·단체를 중앙정부(중앙단위 공공기관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타단체로 나누어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단체들은 중앙정부(5.16)와 기초자치단체(5.16)가 위탁한 사업의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4.00)가 위탁한 사업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7) 운영상의 애로 사항(서술식)

단체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해당단체들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발전을 위한 사업비(위탁사업비 외) 부족을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충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가 부족하여 전담인력의 업무량 과다, 낮은 처우에 따른 이직률 상승,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단체는 자체사업비 및 건물 공간 등 고정자산이 부족하여 위탁사업 추진 시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의 기획력과 창의성, 자율성 등을 보장, 사업 수행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별 공모 방식에서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유 인력들의 정책조망능력, 행정능력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8) 외부 지원 요구사항(빈도수로 정리)

단체에게 필요한 외부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단체들이 제시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설 문 문 항

8. 귀 단체에게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을 3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빈도	%
사무실, 교육 공간 등 인프라 지원	3	11.5
위탁 계약의 안정성	5	19.2
자체 사업비 지원	7	26.9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3	11.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1	3.8
우수 전문인력 제공	2	7.7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	4	15.4
기타	1	3.8

필요한 외부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단체들은 자체 사업비 지원(26.9%)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위탁계약의 안정성((19.2%), 사무실 및 교육 공간 등 인프라 지원(11.5%),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11.5%),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9)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서술식)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요구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해당단체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자기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은 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자 확보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직접 사업비 및 건물·공간 등 시설 지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세종·충남지부의 경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육성 지원, 현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인적 자원 발굴 육성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 시사점

본 면접설문조사는 크게 조직내부역량 평가, 역할수행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자체 사업의 종류, 관계 기관별 교류현황, 외부기관의 지원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요구되는 외부지원 사항,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총 9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조직내부 역량 자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1)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자기 전망과의 밀접성 (2)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에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3)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4)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 (5) 사업 기술(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6)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파트너십) (7) 조직 구조(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 (8)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9)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등 총 9개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단체의 역할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1)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2) 외부 역량으로 의뢰하여 모두 제공 (3) 자체 역량 중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4)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5)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등 모두 5가지를 제시하여 단체별로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 정보수집과 제공 (2) 각종 시설 및 장비 중개 (3) 일자리 알선 (4)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홍보 (5)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6) 회원사의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7)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8)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문 및 컨설팅 (9) 정부정책 참여 (10)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11)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12)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13) 기술 중개기능 (14) 회원사 또는 기관단체간의 협력조정기능 등 모두 14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여 각 항목별로 빈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체가 수행 가능한 자체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3번 문항에서 제시된 14개의 세부 항목 중 7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하였고, 관계기관과의 교류현황과 빈도를 묻는 문항은 (1) 중앙정부 부처 (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3) 대학 및 연구소 (4) 지방의회 (5) 민간기업 (6) 비영리단체(NGO 등) (7) 관련 공공기관 (8) 관련 단체 (9)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등 모두 9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여 각각 항목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외부기관의 지원현황과 만족도 평가 항목에서는 각각의 단체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주체를 명시하도록 한 후 사업별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상 애로사항과 단체 활성화 방안을 묻는 항목은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기반 비영리단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의 자율성과 조직의 정체성, 조직 구조의 합리성 등은 ‘대체로 강함’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의 전문성이나 사업 기술능력, 조직원 동기부여 등 조직문화, 조직의 물적 인프라 등은 개선·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단체의 현재 재정자립 상태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서, 재정자립기반 개선을 위한 단체의 혁신적인 전략과 계획이 요구된다.

둘째, 해당단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여 보면, 오로지 자체 역량으로만, 또는 자체 역량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보다는 사업의 성격이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단체들이 이에 대한 마인드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재정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 및 역량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체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해당단체들의 현실 역량 상, 그리고 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 자체 역량만으로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자체역량만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해당단체들의 역할이 다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 빈도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이들 해당단체 뿐만 아니라, 산학연관 등 지역사회 내에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가 부족하고 연대·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 관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교류빈도가 그나마 '대체적으로 많음'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이들 기관단체들이 기업지원 정보와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해당단체들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교류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단체들이 코디네이터로서의 마인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과의 교류빈도가 '낮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획일적인 하향식 위탁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교류가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단체들이 정책 건의 또는 제안활동 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해당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한 재정자립 기반은 단체의 존립과 안정적인 운영 자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단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물적 지원과 위탁사업을 요구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회원확대와 낮은 회비 징수를 제고, 자체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회원 기반이 두터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 모색과 함께 재정기반 혁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제5장 정책제언

### 1. 정책도입 타당성

#### ① 중간지원조직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정립 필요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나타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거나 사회봉사단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종 산업 분야별 협회나 기업가들의 모임을 당사자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기업들 간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주체 간 협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의 역할 인식 필요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기능을 대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과정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부의 공적인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각종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주요 활동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파트너십에 의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자율적 운영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관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다. 따라서 정부 사업을 대행하거나 지침에 따른 경직적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및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이후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의 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준공공성을 확보하고 이후의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조직의 운영을 지속하고 소속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사업을 대행하고 이를 통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보조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시행 참여를 통한 능력향상 필요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방식은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거나 사업시행초기에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또는 사업이후에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능력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주민이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그 운영권한을 해당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기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 및 주민들의 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 ⑤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

중간지원조직은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기 조직의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필요한 주체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현황과 문



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주체들을 직접 발굴하여 연계,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접속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지역 과제해결과 지역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조 필요

앞서 제3장과 같이 충남 산업경제 분석결과,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동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양질의 경제활동인력 확보, 지역 간 격차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균형성장정책의 필요, 일부 국가에 편중적인 교역 상황을 넘어선 교역대상국의 확대 및 교역량 증대, 우수 인력의 지역공급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선을 통한 산업경제 성장지원활동의 확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관 주도 정책과 여전히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과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실정에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의 혁신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지역혁신체제론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과제해결과 지역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등을 포함한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그 체제의 한 핵심주체로 위치해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 1) 정책추진방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① 제1단계 : 개별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육성(양적 성장 단계)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및 컨설팅, 지역적 근거리 유통관련 사업, 지역 사업체 간 협력 사업 등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단체의 협의체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을 얻고 또 지역차원에서 활동하려는 많은 조직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말하자면, 의욕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 관련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제2단계 :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유도 (협력증진단계)

특정한 분야별 연구 및 각종 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간지원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정책 사업을 시행한다. 이들이 사업의 준비, 시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지식과 지역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대외적인 현황과 각종 관련 지식을 얻고 이를 교류협력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로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의 개발자 및 요구자들을 파악하고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③ 제3단계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지원과 지역발전 주도 준공공기관 설립 (통합단계)

최근 선진국의 지역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지역발전 주도 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중간지원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의 설립방법은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공동 투자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서 해당 기관이 정부나 지자체 및 특정 기관의 요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 2) 정책추진과제

### (1)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우선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 대상에 선정된 단체들은 수평적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니지만, 해당단체들의 설립목적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능과 역할 등을 볼 때, 포괄적인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들이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발

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자하는 행위를 추구한다는 점 등 그 기능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 당사자들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경제발전의 핵심혁신 주체로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회원 기반의 당사자 조직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회원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인식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론에 기반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들 단체들을 지역혁신체제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혁신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단체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견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관료적이고 경직적이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산업경제정책을 비롯한 지역의 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산업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이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만이 단체들이나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경제 전반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 주제인 ‘충남지역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자립 토대 구축 지원

회원 기반 비영리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의 존엄성과 독립성, 자율성 등을 스스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자체 역량에 기초한 운영과 존속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인 재정자립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조사결과, 현재 해당단체들의 재정자립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 단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으로 부터 유치한 일률적인 위탁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위탁사업들은 해당단체들이 기업의 욕구와 수요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관

런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단체들이 자기 존엄성과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즉, 사업을 위탁한 중앙정부 등이 제시한 기준과 지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단순 대행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위탁사업 수행에 단체가 보유한 인력 등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혁신주체로서의 단체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역점적 시행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회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의 혁신능력을 저감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회원확대 및 회비징수를 제고, 자체 수익 모델 개발 등 지속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통하여 단체의 존속과 안정적인 운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중간지원조직의 자체 사업 개발 지원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은 지역혁신주체로서 단체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역점적 시행이 필요하다. 해당단체들은 중간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고유활동보다는 외부에서 유치한 일률적인 위탁사업에 대부분의 조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회원기업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체사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회원기업들의 기대와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원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을 코디네이터로 육성 지원

해당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즉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활동 등이 요구되는데, 이 같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단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상근인력을 양질의 전문 코디네이터로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외부 위탁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만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의 활동

에 그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 상시인력의 경우 코디네이터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기획력과 창의성 그리고 협력과 조정, 지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워킹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도, 발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해당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냉정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과 역량 하에서 단체의 코디네이터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④ 단체들간 사회적 연대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해당단체들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연대와 협력, 신뢰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산학연관등을 포함한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 등의 흐름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함에 있어서 각각의 혁신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역 산업경제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해당단체들이 보다 선도적으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역혁신주체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며 이런 역할 수행을 통하여 우선 지역사회에 연대와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에 근거한 지역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민간주도로 설립된 산업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추진해야 될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보 및 지식의 원활한 확산 체계 구축

산학연관 등을 포함한 지역혁신 주체들 간에 각종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의 원활하게 유통 및 확산될 수 있는 촉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체제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산학연관 등 핵심혁신주체들이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범위아래서 실현 가능한 모델로 설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한 내생적 발전의 주요 토대

가 마련될 수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 ②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민간 이전 추진

지역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 등 공공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사업 효과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단체로의 과감한 이전, 지원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나 광역단위 기업지원공공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과연 지역산업경제 현장의 욕구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인지, 실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축소, 일몰 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 중에 생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기준으로 공공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민간단체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를 평가한 후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 사업 중에 민간단체들 또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이전 및 지원을 추진한다면, 해당단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크게 고취시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중간지원조직의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지방정부는 단체들의 자기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 수립하는 것을 적극 장려, 지원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의 경우 현장과의 밀접성이 높아 지역산업경제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 비하여 환경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현장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 추진하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부합하고 현장의 욕구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을 기획, 수립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게 되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④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운영 필요

지방정부 주도의 관련 정책수립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지역 산업경제정책 수립과정에 혁신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단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욕구와 수요, 지역의 경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혁신 능력을 크게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추진을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⑤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책사업 참여를 통한 연구 개발능력 제고 지원

지역산업경제계의 요구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들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산업경제정책의 수립 프로세스를 볼 때, 하드웨어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핵심주체인 지방정부의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산업경제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또한 정책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산업경제 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투명성, 일관성,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경제관련 핵심 혁신주체인 해당단체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⑥ 지역주체들의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주체 간 공동협력 사업은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을 고취시킴으로서,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들 주체들 간의 공동협력 사업이 지역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지 등을 엄정하게 평가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⑦중간지원조직 설립 육성 지원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양적 증가 및 육성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산업경제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혁신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경제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양적 규모와 활동능력 등의 수준은 지역산업경제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진사례의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지, 또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신의 사명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지역산업경제발전과 지역혁신능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병수. (2010). 지속가능한 도시경제개발 측정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2호.
- 강성철·문경주·김도엽. (2007). 지속가능성 지표 비교평가. 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 고재경·주정현. (2012),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주정현. (2014). “유럽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연구”, 「환경정책」, 제22권 제2호, pp.101-135.
- 김대중(2014), “고성장 산업군의 발굴 및 육성전략: 가젤산업에 대한 시론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5호, pp.2821-2830.
- 김대중·김태연(2014), “지역전략산업의 지역경제성장 효과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4호, pp.2085-2092.
- 김대중·경중수·김태연(2015), “충청지역 창조산업 부문별 산업구조 특성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2호, PP.197-219.
- 김대중·김태연(2015), “방위산업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의 연계전략: 충남지역의 기동 및 통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PP.59-85.
- 김수신·고병호. (2007).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재한. (2007). 우리나라 대도시의 지속가능발전성 비교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 김재현·장주연·이효정, 201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 투자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1사1촌 운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11-224.
- 마상진, 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점출. (2009).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두범, (2011), “충남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56호(2011, 가을호), 충남발전연구원, pp.31-39.
- 이미홍·김재현·장주연. (2011).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중간지원조직 분석: LH 초록사회 위원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1호, pp.141-178.
- 이철우·이종호·김명엽 (2003),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개발기구(ERVET 시스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pp. 1-20.
- 장욱. (201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7-34.
- 정수하·이한주·이화진, 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 정영근·강상목·여준호. (200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자원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3권 제3호.
- 조창연. (2012). 지속가능보고서 성과지표의 분석.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http://www.region.go.kr)
- 지역발전위원회. (2013).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 최영출 외. (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 최영출. (201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의 정책적 핵심요소 분석.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충남도청 [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 충남발전연구원. (2013).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201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제51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제516호.

희망제작소. 2008. 「일본 시민사회의 꽃, NPO 지원센터를 가다」, 희망제작소.

内閣府(2002), 中間支援組織の現{實と課題に関する調査報告書, 第一総合研究所.

Amin, A., 1999, “The Emilian Model: Institutional Challenges” , *European Planning Studies*, 7(4), pp. 389-405.

Bellini, N. and Pasquini, F., 1998, “The case of ERVET in Emilia-Romagna: towards a second-generation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in Halkier, H., Danson, M. and Damborg, C.(ed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 Europe*, London, Jessica Kingsley, pp. 253-270.

Blank, M. J., Deich, S., Kazis, R., Bolitz, B. and S. Trippe. 2003,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Connecting the Dot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Partners for the Intermediaries Report*, pp.1-8.

Briggs, Z., 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 The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MIT. available at [www.communityproblem-solving.net](http://www.communityproblem-solving.net).

Brown, D. and A. Kalegaonkar, 2002,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Evolution of the NGO Sector” ,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31, no.2, pp. 231-258.

Brusco, S., 1982, “Small firms and the provision of real services” , in Pyke, F. and Sengenberger, W.(eds.), *Industrial Districts and Local Economic Regeneration*, Geneva, ILO.

Brusco, S., 1992, “The Emilian Model: productive decentr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 pp.167-184.

Compass Partnership, 2004, “Working Towards 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 available at [http://www.compasspartnership.co.uk/pdf/pr\\_1.pdf](http://www.compasspartnership.co.uk/pdf/pr_1.pdf).

Cooke, P. and K. Morgan,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 and Innov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lNet & ASTER, 2002, Emilia-Romagna Region and the ERVET System(Italy)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12, ILO.
- Gertler, M., 2001, “Best practices? Geography, learning and the institutional limits to strong convergence” ,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pp.5-26.
- Hargadon, A. and R. I. Sutton, 1997, “Technology Brokering and Innovation in a Product Development Firm”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pp. 716-749.
- Howard Partners, 2007,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Support of Innovation” ,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 Howells, Jeremy, 2006,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 *Research Policy*, vol.35, pp. 715-728.
- Kellogg Foundation, 2002,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 Initial Inventory of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 Laur, I., M. Klofsten and D. Bienkowska, 2012. “Catching regional development dreams: a study of cluster initiatives as intermediaries” , *European Planning Studies*, (20), 11, 1909-1921.
- McEvily, B., Zaheer, A., 1999. Bridging ties: a source of firm heterogeneity in competitive cap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 1133-1156.
- Mittilä, T. 2008, “Intermediary Organisation in a Regional Development Network” , Confer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cesses, March 5th-7th, 2008, Porvoo - Borgå, Finland.
- Moss, T., 2009, “Intermediaries and the governance of sociotechnical networks in transition”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41, pp.1480-1495.
- Nilsson, M. and C. Sia-Ljungström, 2013, “The Role of Innovation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Systems” , *Proceedings in System Dynamics and Innovation in Food Networks*, North America, August, 2013.

- Pyke, F., 1994, *Small firms, technical services and inter-firm cooperation*, Geneva, ILO.
- Sanyal, P., 2006, “Capacity Building Through Partnership: Intermedia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Local and Global Actors” ,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35, no.1, pp. 66-82.
- Technologie-Netzwerk Berlin e.V., 2001, Promoting Local Employment in the Third System -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Structures in Promoting Third System Employment Activities at Local Level, Berlin: Technologie-Netzwerk Berlin e.V.
- Valentin, M. 2000. “University cooperation: a framework of benefits and obstacle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Vol. 14 (No. 3), 2000, p. 165-172.
- Van der Meulen, B., Rip, A., 1998. Mediation in the Dutch science system. *Research Policy* 27, 757-769.
- Williams, R., 2002, “Bologna and Emilia Romagna - A Model of Economic Democracy” ,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UNiversity of Calgary.

## 부록 :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표

### 충남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

####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의 기관 현황, 사업 현황, 조직 역량, 제도 개선 요구 조사

##### ■ 조사대상

- 충남소재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

##### ■ 조사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0일

##### ■ 조사방법

-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이뤄짐

#### 【질문지】

### 충남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애로사항,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파악하여, 충남 소재 경제관련 중간지원조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귀하나 귀 기관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충남연구원 원장

## ■ 일반 현황

중간 지원 조직 사항	명칭		설립 연도	년
			법적 형태	
	모기 관 과 관계	지원 정도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대부분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일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에서 지원 거의 없음	
		관여 정도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이 인사, 재정, 사업 등 일체 주도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이 인사, 재정, 사업 등 부분 관여 <input type="checkbox"/> 모기관에서 인사, 재정, 사업 등 자율성 보장	
		모기관 내 지위	<input type="checkbox"/> 독립 지위 <input type="checkbox"/> 부설기관 <input type="checkbox"/> 사업부서 <input type="checkbox"/> 담당자체제	
	주요 사업			
	사업의 지역 범위	① 기초지역		
		② 광역지역		
		③ 전국		
	재정	예산: ( )만원 재원: 정부( )%, 모기관( )%, 자체수익( )%, 기업( )%, 기타 ( )%		
	인력	전담인력 수: ( )명 보조인력 수: ( )명		

### 1. 귀 단체의 조직 내부 역량을 자가 평가한다면?

조직 내부 역량	자가 평가 (약함 ↔ 강함)	해당 없음
(1)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 자기 전망과의 밀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에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사업 기술(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 / 파트너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조직 구조(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동기부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귀 단체의 회원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은?

- ①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 ②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모두 제공
- ③ 자체 역량 중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 ④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 ⑤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3. 귀 단체가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제공 양/빈도 (적음/없음 ↔ 자주/많이)
(1) 정보수집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각종 시설 및 장비 중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자리 알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회원사의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부정책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기술중개기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회원사 또는 기관단체간의 협력조정기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위 3번에 언급된 서비스 중 귀 단체의 자체 역량만으로 가능한 분야는(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        ) (        ) (        ) (        ) (        ) (        ) (        )



5. 귀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종 정보수집과 자원 연계 등을 위해 관계하는 기관별 교류 현황은?

네트워크 기관	교류 빈도 (적음 ↔ 많음)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학 및 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방의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기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비영리단체(NGO, 종교기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련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련 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외부기관의 귀 단체(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에 대한 지원 현황은?

지원 주체 (기관명)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비	만족도 (불만족 ↔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귀 단체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상의 애로사항(주관식) (예: 예산부족 / 자율성부족 / 종사자 근속과 비전부족 등)

8. 귀 단체에게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을 3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 ☐ 사무실, 교육 공간 등 인프라 지원
- ☐ 위탁 계약의 안정성
- ☐ 자체 사업비 지원
- ☐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 ☐ 우수 전문인력 제공
- ☐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
- ☐ 기타 ( )

9. 충남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관식)

감사합니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 고경호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대중 선문대학교 연구교수

홍동욱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전략연구 2015-15 ·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초 실태조사 연구

글쓴이 · 김태연, 고경호, 김대중, 홍동욱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8월 31일 / 발행 · 2015년 8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2(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06-3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